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7. **11** Vol. 191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시 문화상 수상한 연극인 허영길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정말 풍성한 가을시, 가을노래

여화등등 이야기 국악 _ 전통음악은 변율(變律)에 자연미가 있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미국

B U S A N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5회 정기연주회

PHILHARMONIC

CONDUCTOR, ALEXANDER ANISSIMOV

ORCHESTRA

HARP, YOUNG-LIP KIM

4 3 5 T H

PIANO, ESTHER PARK

SUBSCRIPTION

FRIDAY, NOVEMBER 16, 2007, 7:30PM

C O N C E R T

2007.11.16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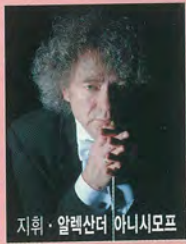
드뷔시 「신성한 무곡과 세속적 무곡」 메시앙 「승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쇼스타코비치 「발레 모음곡 제1번」



하프 · 김영립



피아노 · 에스터 박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주최 _ 부산광역시 후원 _ 문화체육관광부 2007-2010 문화체육관광부 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 _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365 02-550-3653 www.ticket365.co.kr
영광도서 동보서적 면학도서 남포문고 대한도서 향학서점 ※ 무료셔틀버스



신비의 겨울,
러시아와 북유럽으로 떠나는

송년&신년 문화예술테마여행

-오페라, 발레, 신년음악회, 그리고 초호화 크루즈 여행

2007. 12. 30(일)~2008. 1. 6(일) (7박8일)

문의 : (051)610-1004 www.grandopera.or.kr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1주년 · 부산일보 창간61주년 기념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시리즈 II

La Traviata 라 트라비아타

2007. **11.24** (토) 오후5:00 / 오후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그랜드오페라단 부산일보사

|협찬| KYOBO 교보생명 강동병원 대성병원

|공연안내 및 예매| (051) 610-1004 www.grandopera.or.kr



뉴브라임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성정어



소프라노
서월란



테너
전병호



테너
나승서



바리톤
이창홍



바리톤
김정원

|인터넷예매| 인터파크 (1544-5555 www.interpark.com) TICKET365 (1588-2528 www.ticket365.co.kr)

|지정 예매처| 부산은행 전 지점 예매처 그랜드 오페라단 (051-610-1004)

VIP석 10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가족석 R석(4인) 190,000원 가족석 S석(4인) 140,000원

글린카필하모니교향악단

Zaporzhye Academy Symphonie UKRAINE

지휘 : 음악감독 김영근

지휘 : 상임 슬라바 레디아



18일(일) 부산오페라소사이어티 창단 축하 갈라콘서트

‘우리 가곡의 향연’

부산문화회관 오후 4:00



지휘 김영근

- *테너 박찬
- *소프라노 박은미
- *바리톤 하병욱
- *소프라노 박미경
- *메조소프라노 차순례
- *테너 강학운
- *특별출연 플룻 김정선
- *특별출연 첼로 노선희
- *특별출연 더블베이스 김창호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OST 지휘자 슬라바 레디아와 함께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무소로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비에니악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27일(화) 부산시민회관 오후 7:30



지휘 슬라바 레디아



피아노 서심미



바이올린 황지원

- 18일 : 우리 가곡의 향연 갈라콘서트
- 27일 : 무소로그스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전람회의 그림’
비에니악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 28일 : 금정문화회관 ‘협주곡의 밤’

회원권예매[부산공연] : VIP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학생 1만원

부산은행 전지점 에매수수료없는 TICKET365 (인터넷 예매 30% 할인)
www.ticket365.co.kr

※ 전 공연 500분에 한하여 1회분 회원권을 구입하시면 2회 공연을 관람가능한 2회 [멀티티켓]을 드립니다.(티켓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주 관 :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010.9798.9434)

Contents

2007 · 11



16



44



72

- 08 부산문화회관 11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음악이 흐르는 도시 자포르지에 · 김영근
- 12 반갑습니다 | 부산시 문화상 수상한 연극인 허영길
- 14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정말 풍성한 가을시, 가을노래 · 김상훈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미국 · 이승주
- 20 어화등등 이야기 국악 | 전통음악은 변율(變律)에 자연미가 있다 · 강성일
- 22 우리춤 산책 | 범패와 불교무용 · 홍기태
- 24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숨어있는 말, 의미들 · 김형술
- 26 연극속으로 | 고은이 엄마 · 유상홍
- 28 그곳에 가면 | 마산시립문신미술관
-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리코더아카데미
- 32 지금 준비중 | 극단 아센 '돌이서, 셋이서, 혼자서'
- 34 이 사람 | 동요작곡가 박봉렬, 판화가 채경혜
- 36 전시 화제 |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 38 쉽게 듣는 클래식 | 오페라(3) · 광근수
- 39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4 11월 프로그램 가이드
- 64 세계의 뮤지컬 | 위키드 · 이상훈
- 65 새로 나온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7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 71 100자 토크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 발행인 정우연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10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동 263-4 하이웰 B/D 비층
- 표지설명 : 부산시립무용단은 11월 8일과 9일 우주의 순환과 상생을 응장한 목소리에 담아낸 창작무용 '환-순환의 고리, 몸'을 선보인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i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1 월 공연일정

전시실

■부경서학회전-대전시실

10월 30일(화)-11월 2일(금)

문의 서기식(011-9514-9324)

■제 16회 부산한국화전-대·중전시실

11월 5일(월)-11월 11일(일)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중앙대학교 개교 61주년 기념 제 40회 졸업작품전-대전시실

11월 13일(화)-11월 15일(목)

문의 동아대학교(240-1920)

■사진집단 일우 12기 팔색조-중전시실

11월 12일(월)-11월 15일(목)

문의 박덕수(018-394-1319)

■아시아 오픈 아트 페어 -대·중전시실

11월 16일(금)-11월 22일(목)

문의 허숙(803-8830, 011-882-8150)

■제 10회 대한 서화예술대전-대·중전시실

11월 24일(토)-11월 27일(화)

문의 석현석(011-878-5478)

■부울경 최고서화 예술대전-대전시실

11월 28일(수)-11월 30일(금)

문의 김민수(806-4295)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인내 : 62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1 thu 2007 부산국제합창제 갈라 콘서트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2 fri 2007 부산국제합창제 갈라 콘서트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3 sat 2007 부산국제합창제 시상식, 축하공연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4 sun
- 5 mon
- 6 tue
- 7 wed
- 8 thu 부산시립무용단 제 57회 정기공연 '환-순환의 고리, 몸'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9 fri 부산시립무용단 제 57회 정기공연 '환-순환의 고리, 몸'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0 sa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 11 sun 피아니스트 임동민 리사이틀 17:00
5만원 · 3만원 · 2만원/예성기획(582-2026)
- 12 mon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동아대학교 19:30
무료/한국음악협회 부산지부(634-1295)
- 13 tue
- 14 wed
- 15 thu 제 4회 2007 세원음악회 19:30
초대/미래와 음악(242-5231)
- 16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5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17 sat 2007 김희은의 춤 '선택' 19:30
1만원 · 5천원/부산예술대학(627-7992, 011-9734-5057)
- 18 sun 우크라이나 교향악단 초청 대음악회 '우리가족의 향연' 16:00,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622-3336)
- 19 mon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부산대학교 19:30
무료/한국음악협회 부산지부(634-1295)
- 20 tue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동아대학교 19:30
무료/한국음악협회 부산지부(634-1295)
- 21 wed 2007 김복선 발레공연 19:30
3만원 · 2만원 · 1만2천원/동아대학교(200-7823, 011-2028-9907)
- 22 thu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과 함께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23 fri
- 24 sat 금년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 시리즈II '라 트라비아타' 17:00, 20:0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그랜드오페라단(610-1004)
- 25 sun
- 26 mon 수능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푸치니 '라보엠' 19:30
균일 2만원/부산오페라연구소(747-1567, 010-3038-7191)
- 27 tue 예음회 창단 10주년기념 폴란드의 마에스트로 '마렉 드레브노프스키' 초청 피아노 협연의 밤 19:30
균일 2만원/그랜드오페라단(610-1004)
- 28 wed 테너 김진원 고희기념 작사 작곡 독창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클래식아트매니저(621-6646)
- 29 thu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30 fri
- 31 sat

중극장

MEDIUM THEATER

- 1 **thu** 2007 부산국제합창제 합창경연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원위원회(622-0534)
- 2 **fri** 2007 부산국제합창제 합창경연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원위원회(622-0534)
- 3 **sat** 2007 부산국제합창제 합창경연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원위원회(622-0534)
- 4 **sun**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1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정공회(627-8088, 010-2565-8724)
- 5 **mon** 부산원로음악가회 제 2회 원로음악회 19:30
무료/전이동(011-835-0388)
- 6 **tue** 향신회 제 42회 작곡발표회 '합창음악의 밤' 19:30
균일 1만원/정승원(011-554-1657)
- 7 **wed**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제 24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8 **thu**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제 24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9 **fri**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제 24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10 **sat** 김수진 작곡 발표회 19:30
초대/김수진(017-550-1299)
- 11 **sun** 제 13회 부산전자음악협회 정기공연 2007 부산디지털 미디어음악축제 19:30
균일 5천원/부산전자음악협회(011-873-7983)
- 12 **mon** 한국가곡연구회 제 11회 정기공연 12:00 김동윤(011-875-3502)
작곡 동인 임태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 19:30 최석태(607-6127)
- 13 **tue**
- 14 **wed**
- 15 **thu** 금찬이 피아노 리사이틀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 16 **fri** 프랑스 디오티마 사중주단 초청공연 19:30
3만원 · 2만원/부산문화(635-9081)
- 17 **sa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작곡가 박봉렬의 부산사랑 동요시랑'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 18 **sun** 부산원로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5:00
균일 1만원/양심원(016-588-5927)
- 19 **mon**
- 20 **tue**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생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여성문화회관(320-8341)
- 21 **wed**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초대/조현미(011-9551-0959)
- 22 **thu**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양상블로 듣는 예술가곡'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23 **fri** 한일영악연구소 제 12회 정기공연 시조형무극 '동짓달 가나긴 밤을' 19:30
1만원 · 5천원/정인경(626-4449, 011-870-8597)
- 24 **sat** 제 14회 한국바로크 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이규일(011-864-0291)
- 25 **sun**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18:00
무료/부산사랑여성모임(809-7287, 016-840-0580)
- 26 **mon** 노엘합창단 제 48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윤진식(622-0224)
- 27 **tue** 제 15회 소리테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하룡(011-9535-0421)
- 28 **wed**
- 29 **thu** 제 5회 새 물결 춤 모음전 19:30
1만원 · 5천원/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632-5116, 010-6482-5680)
- 30 **fri**
- 12/1 **sat**

소극장

SMALL THEATER

- 1 **thu** 2007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워크샵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원위원회(622-0534)
- 2 **fri** 2007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워크샵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원위원회(622-0534)
- 3 **sat** 2007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워크샵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원위원회(622-0534)
- 4 **sun**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 범소리어린이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16:00
무료/통도사 부산포교원(816-2241)
- 5 **mon**
- 6 **tue**
- 7 **wed** 동서씨어터 '코볼소' 19:30
1만5천원 · 1만2천원/동서씨어터(320-1916, 019-523-8702)
- 8 **thu** 동서씨어터 '코볼소' 19:30
1만5천원 · 1만2천원/동서씨어터(320-1916, 019-523-8702)
- 9 **fri** 동서씨어터 '코볼소' 19:30
1만5천원 · 1만2천원/동서씨어터(320-1916, 019-523-8702)
- 10 **sat**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극단 옹고집'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1 **sun** 대웅제약 VIP 콘서트 16:00
초대/말엔피코리아(02-558-4588)
- 12 **mon**
- 13 **tue** 석포초등학교 작은 음악회 10:00
무료/최정란(624-4779)
- 14 **wed**
- 15 **thu** 동요사랑회 제 14회 동요사랑큰잔치 18:00
무료/신진수(017-553-5675)
- 16 **fri**
- 17 **sat** 토요상설무대 '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8 **sun**
- 19 **mon**
- 20 **tue**
- 21 **wed**
- 22 **thu** 전국투어 이쿠로 후지와라 독주회-부산 20:00
5만원 · 3만원/아트인부산(442-6500)
- 23 **fri**
- 24 **sat** 토요상설무대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5 **sun** 이세호 작곡발표회Ⅲ 17:00
균일 1만원/이세호(011-561-4925)
- 26 **mon**
- 27 **tue**
- 28 **wed**
- 29 **thu** 교통안전홍보 뮤지컬공연 '노노 이야기' 11:00, 14:00
초대/부산광역시 교통기획과(888-3364)
- 30 **fri** 교통안전홍보 뮤지컬공연 '노노 이야기' 11:00, 14:00
초대/부산광역시 교통기획과(888-3364)
- 12/1 **sat**

부산시내 기타공연 11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thu** 연극 '유랑극단' 16:30, 19:30 -소극장
균일 1만원/경성대학교(607-5180)
- 2 **fri**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19:30 -대극장 김성해(628-4206)
연극 '유랑극단' 16:30, 19:30 -소극장 경성대학교(607-5180)
- 3 **sat** 박성호의 춤 18:00 -대극장
5만원 · 3만원 · 2만원/박성호(621-1289)
- 4 **sun** 루마니아 플로리에스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18:00 -대극장
균일 1만원/(주)프르아트(02-585-2934)
- 5 **mon** 월요영화 '권순봉사님 납치사건'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제 8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 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 6 **tue** 제 8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 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초대/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7 **wed** 제 8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 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초대/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8 **thu**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기악과 정기연주회 19:30 -대극장 고신대(990-2231)
제 8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 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 9 **fri** 제 8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 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초대/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10 **sat** 7080 도시락콘서트 16:00, 19:00 -대극장 BOLL엔터테인먼트(1644-3544)
가족뮤지컬 '통과 제리' 12:00, 14:00, 16:00 -소극장 즐겨찾기(1544-3180)
- 11 **sun** 가족뮤지컬 '통과 제리'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원/즐거찾기(1544-3180)
- 12 **mon** 월요영화 '비키밍 제인'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3 **tue** 부산코러스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19:30 -대극장
초대/정현모(016-551-7542)
- 14 **wed** 제 18회 이간음악회 '하모닉브라스 초청연주회' 19:30 -대극장
초대/(주)이간산업(032-760-0383)
- 15 **thu**
- 16 **fri** 제 24회 신라대학교 무용학부 졸업작품 발표회 19:00 -소극장
초대/신라대학교(999-5301), 김소연(010-4564-6963)
- 17 **sat** 보로로와 요슬렘프 11:00, 14:00, 16:00 -대극장 부산MBC(760-1166)
흠피리 제 14회 정기연주회 18:00 -소극장 김동희(010-6768-2863)
- 18 **sun** 보로로와 요슬렘프 11:00, 14:00, 16:00 -대극장 부산MBC(760-1166)
최재연 전통벨리칸스 정기공연 15:00 -소극장 최재연(011-880-0340)
- 19 **mon** 월요영화 '러시아워'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19:30 -소극장 M&M(010-9608-8799)
- 20 **tue** 유·U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 21 **wed**
- 22 **thu** 한화와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금산새와 유리아산필의 오페라 여행' 19:00
-대극장 초대/대한생명 박물관(669-6747)
- 23 **fri**
- 24 **sat** 정사익소리판 '사람이 그리워서' 19:00 -대극장 행복을 부리는 편(638-0514)
토니의 매직쇼 12:00, 14:00, 16:00 -소극장 J엔터컴(1566-9868)
- 25 **sun** 토니의 매직쇼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5천원/J엔터컴(1566-9868)
- 26 **mon** 월요영화 '본 얼티메이텀'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7 **tue** 우크라이나 클린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19:30 -대극장
7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622-3336)
- 28 **wed** 제 5회 부산종교인 평화예술제 18:00 -소극장
초대/부산종교인 평화회의(403-4848)
- 29 **thu** 부산어머니가아름다운 찬양공연 19:00 -대극장 강봉천(011-355-4833)
직악회 신작발표회 19:30 -소극장 이주애(010-5632-2501)
- 30 **fri** 영호남 해학과 풍자의 한마당 19:30 -대극장 부산국악협회(644-5211)
제 5회 말레니엄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19:30 -소극장 정덕원(017-554-7292)

12/1 **sat**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051~2)

- 1 **thu** 정소연 클래식 연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정소연(017-577-7703)
- 2 **fri**
- 3 **sat** 박해미의 로맨틱 뮤지컬 'DO! | DO!' 16:00, 19:30 -대공연장
제 6회 아카데미 콘서트 16:00 -소공연장 손욱(011-9520-4649)
- 4 **sun** 박해미의 로맨틱 뮤지컬 'DO! | DO!' 15:00, 18:30 -대공연장
5만5천원 · 4만4천원/(주)AN시티(1644-4484)
- 5 **mon**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영화 속의 뮤지컬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이은미(010-8277-4746)
- 6 **tue** 페르타바 플루트콰이어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김성진(011-9603-2078)
미래를 여는 음악회 19:30 -소공연장 초대/김남아(019-378-3135)
- 7 **wed** 교사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김용조(010-4568-3995)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619-5651)
- 8 **thu** 김지수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최영희(011-861-2075)
- 9 **fri** 테너 강호진 독창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강호진(019-380-9991)
- 10 **sat** 송연경 첼로 리사이틀 15:00 -대공연장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2007 경기민요 국악예술의 밤 18:30 -소공연장 초대/금정문화회(581-9071)
- 11 **sun**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18: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011-9342-0524)
- 12 **mon**
- 13 **tue** 2007 사랑의 자선음악회 19:3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사)한끼의 식사기금(731-7741)
- 14 **wed** 금정수요음악회 '바리톤 이창룡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619-5651)
- 15 **thu** 정인현, 정재는 색소폰&플루트 듀오리사이틀 19:30 -소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16 **fri** 이문세 동창회 19:00 -대공연장 (주)홍은 콘서트(1599-2005)
성기정 플루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음악자료창고(582-9143)
- 17 **sat** 이문세 동창회 19:00 -대공연장 (주)홍은 콘서트(1599-2005)
김희정 제자 발표회 17:00 -소공연장 초대/김희정(011-580-2452)
- 18 **sun** 이문세 동창회 15:00 -대공연장
6만6천원 · 5만5천원/(주)홍은 콘서트(1599-2005)
- 19 **mon** 부산여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박하순(011-864-1471)
김두천 혼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김두천(010-2559-7569)
- 20 **tue** 배수정 피아노 클래스 음악회 19:30 -소공연장
초대/배수정(011-553-2054)
- 21 **wed** 금정수요음악회 '유망 신예 연주자들의 밤'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619-5651)
- 22 **thu**
- 23 **fri** 김덕수의 다이나미 코리아 19:30 -대공연장
2만5천원 · 1만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4 **sat**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19:30 -대공연장 영남필하모닉(853-1357)
전래 동화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12:00, 14:00, 16:00 -소공연장
- 25 **sun** 전래 동화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극단 한울(1544-1718)
- 26 **mon** 드라마틱 테너 김지호 초청독창회 19:30 -대공연장
5만원 · 2만원 · 1만원/안상철(010-2400-5271)
- 27 **tue** 부산창작합창21 회원 작품발표회 19:30 -소공연장
초대/최상철(890-1318)
- 28 **wed** 글린카필하모닉 초청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30 -대공연장 김영근(622-3336)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619-5651)
- 29 **thu**
- 30 **fri** 박은희의 현대춤 공연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부산대학교(510-1740)

12/1 **sat**

부산시내 기타공연 11월 달력

울속도문화회관

|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331~2)

- 1 thu
- 2 fri
- 3 sat 우수청소년음악회 17:30 -대공연장
초대/포스터음악학원(243-1361)
- 4 sun 제 21회 전국무용경연대회 09:00 -대공연장
(사)한국무용지도자협회(02-2245-6945)
- 5 mon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2008년도 졸업작품발표회 19:30 -대공연장
무료/동아대학교(200-7819)
- 6 tue
- 7 wed
- 8 thu
- 9 fri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동물' 10:10, 11:2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0 sat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동물'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1 sun
- 12 mon
- 13 tue
- 14 wed
- 15 thu
- 16 fri
- 17 sat **전시일정**
2007 내고장사랑 환경종합 발표대회 작품전시회
11월 2일(금)-11월 4일(일)
- 18 sun **특이**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이현재(250-0462)
한국해석동호인총연합회 제 7회 해석전
11월 10(토)-11월 11일(일)
- 19 mon **특이** 회장 김택삼(010-3913-4122)
- 20 tue
- 21 wed
- 22 thu
- 23 fri
- 24 sat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동물' 10:10, 11:2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25 sun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동물'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26 mon
- 27 tue
- 28 wed 인플루트오케스트라 앙상블의 밤 19:30 -소공연장
초대/김영훈(016-571-1063)
- 29 thu
- 30 fri
- 12/1 sat

해운대문화회관

|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1 thu 깊어가는 가을밤의 기타콘서트 20: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김윤종(010-9492-4180)
- 2 fri
- 3 sat 인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뮤즈' 가을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무료/강은재(016-865-1902)
- 4 sun
- 5 mon
- 6 tue 교사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 19:30 -대공연장
초대/박은숙(011-9532-5759)
- 7 wed
- 8 thu 아가페합창단 제 30회 정기연주회 '바울의 회심' 19:00
-대공연장 무료/아가페합창단(816-2807)
- 9 fri
- 10 sat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 9회 정기연주회 18:00 -대공연장
무료/김인옥(011-871-0412)
- 11 sun
- 12 mon
- 13 tue 제 4회 박은숙 오카리나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박은숙(011-9532-5759)
- 14 wed 부산심포닉밴드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30 -대공연장
무료/손정경(017-559-9063)
- 15 thu Rein Art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구중훈(010-2848-4204)
- 16 fri
- 17 sat 이현옥 오보에 독주회 19: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이현옥(010-9949-0511)
- 18 sun 서승완 기타 독주회 20: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서승완(017-598-0074)
- 19 mon
- 20 tue 앙상블 클라시와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 21 wed 청소년 해설음악회 11:00 -대공연장
무료/서영보(010-2400-3994)
- 22 thu
- 23 fri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동물' 10:10, 11:2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24 sat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동물'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25 sun
- 26 mon
- 27 tue 제 14회 영신음악회 19:00 -대공연장
초대/영남장로회신학교(557-6673)
- 28 wed
- 29 thu 춤배 배김새 정기공연 '푸른 눈물' 20: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허연화(017-547-4761)
- 30 fri 디딤새 고운발 박정수의 춤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박정수(011-9538-1069)
- 12/1 sat

음악이 흐르는 도시 자포르지예

김영근 · 우크라이나 자포르지예 필하모니 음악감독

2003년 10월 10일 우크라이나 자포르지예라는 도시로 연주하러 갔다. 폴란드 쉨스트호바 필하모니에서 첼로 수석으로 있는 친구의 권유로 가게 되었다.

가기 전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에 사람이 사는 곳이거나 별일이 있겠나 하고 무척 대고 떠났다. 그러나 가는 도중 몇 번을 되돌아갈까 생각했을 정도로 후회를 했다. 러시아 항공을 탄 것 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고 기내에서 명색이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이어폰 하나 없는 자리와 가는 도중에 영화 한편 볼 수 없는 서비스 등 항공기가 꼭 창고 같았다.

우여곡절 끝에 수도 키예프에 도착, 밤 11시30분 보리스 폴 국제공항을 빠져나와 한적한 호텔에서 여장을 풀 수 있었다. 밤 경치를 보고봤지만 밤에 위험하다고 해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아침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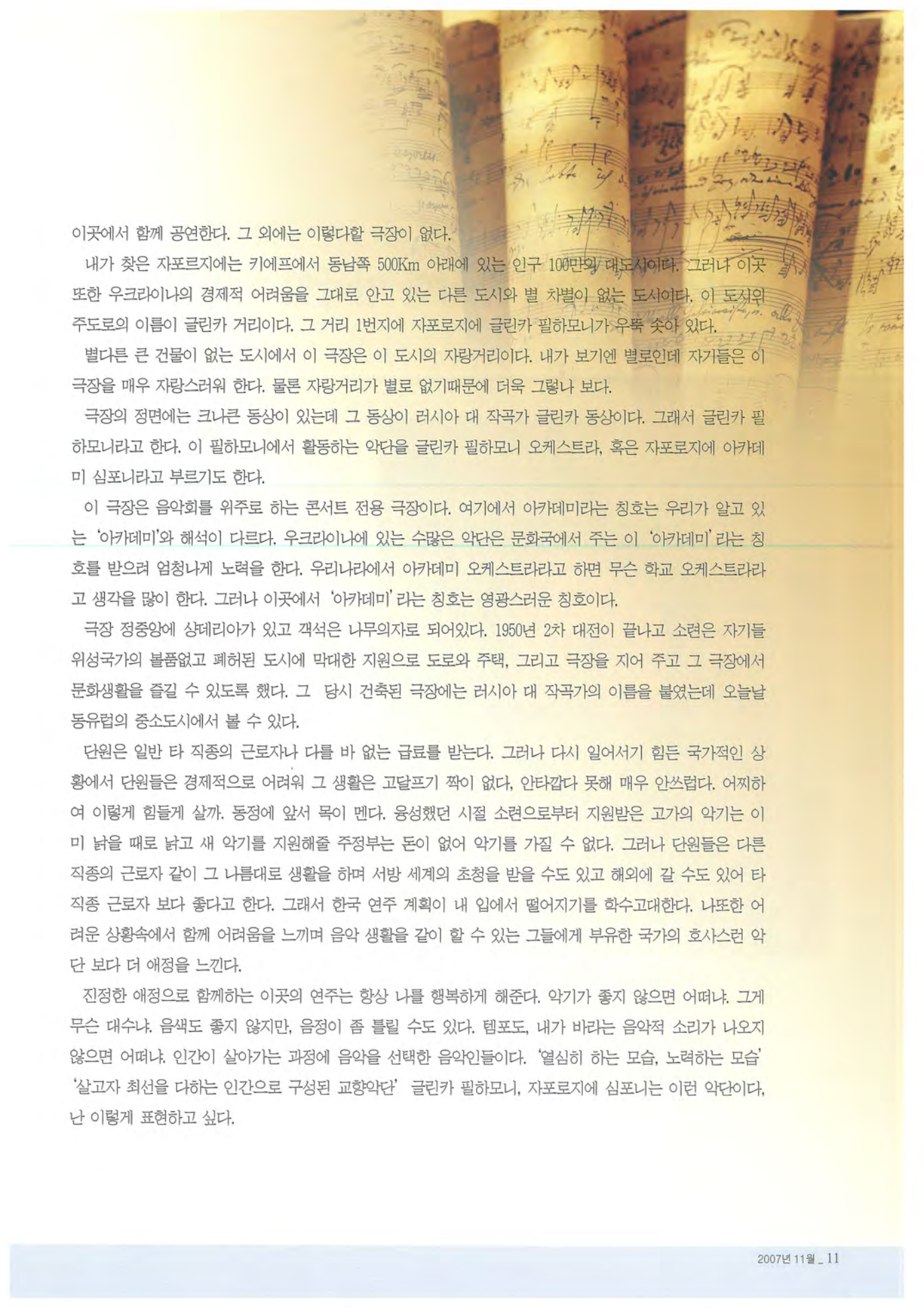
300년의 역사를 가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매우 큰 도시다. 이곳저곳 다니며 경치를 구경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도 하고 저녁에 비로소 자포르지예라는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공항에서 또 한번 자포르지예행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긴 했지만 모든 짐검사를 마치고 좌석권을 받으러 데스크로 갔다. 아주 미인인 여직원이 티켓을 보더니 뭐라고 하면서 작은 쪽지를 그냥 준다. 그 쪽지를 보니 비행기 편명이 적혀있고 seat라는 곳에 좌석 번호가 없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고 물었더니 three라 했다. 그래서 나는 불편을 얻어 3이라는 숫자를 기입하고 여직원을 보니 생긋이 웃는다. 몇분 후에 알았지만 three가 아니고 free였다.

놀랍게도 내가 타고 갈 비행기는 30년이나 지난 프로펠라 비행기였다. 비행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번 기절할 뻔 했다. 비행기 좌석 어느 하나 성한 의자가 없고 벽면은 합판으로 되어 있었고 조종실로 통하는 문은 합판에 페인트를 칠한 문이었는데, 그 문도 맞지가 않는다. 나는 두 시간 동안 급경사로 이루어진 '청룡열차'를 타야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악단이 있다. 다수의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나 국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수도 키예프는 문화 예술의 중심의 도시이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키예프에서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 악단은 젊은 음악가들이 선호하지 않아 단원 수급에 많은 애로가 있다. 지방 악단에서 부수입은 기대할 수가 없기에 지방 악단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다수 중소 도시에는 그 고장을 대표하는 악단이 있다. 키예프에는 국립교향악단과 키예프 라디오 심포니가 있고 오케스트라 전용 국립극장과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 매우 시설이 훌륭하여 오페라단과 무용단이



이곳에서 함께 공연한다. 그 외에는 이렇다할 극장이 없다.

내가 찾은 자포르지에는 키에프에서 동남쪽 500Km 아래에 있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이다. 그러나 이곳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는 다른 도시와 별 차별이 없는 도시이다. 이 도시의 주도로의 이름이 글린카 거리이다. 그 거리 1번지에 자포르지에 글린카 필하모니가 우뚝 솟아 있다.

별다른 큰 건물이 없는 도시에서 이 극장은 이 도시의 자랑거리이다. 내가 보기엔 별로인데 자기들은 이 극장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자랑거리가 별로 없기때문에 더욱 그렇나 보다.

극장의 정면에는 크나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러시아 대 작곡가 글린카 동상이다. 그래서 글린카 필하모니라고 한다. 이 필하모니에서 활동하는 악단을 글린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혹은 자포르지에 아카데미 심포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극장은 음악회를 위주로 하는 콘서트 전용 극장이다. 여기에서 아카데미라는 칭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데미'와 해석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악단은 문화국에서 주는 이 '아카데미'라는 칭호를 받으려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무슨 학교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아카데미'라는 칭호는 영광스러운 칭호이다.

극장 정중앙에 상테리아가 있고 객석은 나무의자로 되어있다. 1950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자기들 위성국가의 불품없고 폐허된 도시에 막대한 지원으로 도로와 주택, 그리고 극장을 지어 주고 그 극장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 당시 건축된 극장에는 러시아 대 작곡가의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날 동유럽의 중소도시에서 볼 수 있다.

단원은 일반 타 직종의 근로자나 다름 바 없는 급료를 받는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국가적인 상황에서 단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다, 안타깝다 못해 매우 안쓰럽다.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살까. 동정에 앞서 목이 멘다. 융성했던 시절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고가의 악기는 이미 낡을 때로 낡고 새 악기를 지원해줄 주정부는 돈이 없어 악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단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 같이 그 나름대로 생활을 하며 서방 세계의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해외에 갈 수도 있어 타 직종 근로자 보다 좋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연주 계획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를 학습고대한다. 나또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느끼며 음악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부유한 국가의 호사스런 악단 보다 더 애정을 느낀다.

진정한 애정으로 함께하는 이곳의 연주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악기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그게 무슨 대수냐. 음색도 좋지 않지만, 음정이 좀 틀릴 수도 있다. 템포도, 내가 바라는 음악적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음악을 선택한 음악인들이다. '열심히 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인간으로 구성된 교향악단' 글린카 필하모니, 자포르지에 심포니는 이런 악단이다,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 선사 부산시문화상 수상한 연극인 허영길



43년간 부산연극 무대를 지켜온 연극인 허영길(67) 씨가 2007년 부산시 문화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시문화상 8개 부문 중 공연예술부문에서는 연극인으로는 다섯번째로 문화상을 수상했다.

부산연극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연극인들이 그동안 상복이 없었던 터라 그의 문화상 수상은 부산 연극계에서도 화제다.

“12월 1일부터 연극 신의 아그네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부산시문화상 수상 축하공연이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열심히 좋은 연극 만들어야지요.”

부산시 문화상 수상이 확정된 후 그는 평생 가난한 연극인으로 살아온 가장을 묵묵하게 지켜봐준 가족들과 후배 연극인들

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연극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이번 상이 현장에서 어렵게 작업하고 있는 연극인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인 허영길은 한국전쟁 중 월남, 1964년 극단 전위무대에서 연극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사람의 아들’ ‘유령’ ‘칠산리’ ‘그 여자의 숲에는 올빼미가 산다’ ‘우리동물원’ ‘신의 아그네스’ 등 150여 편의 연극을 연출해왔다. 부산 연극애호가들에게 인기몰이를 한 수많은 화제작들도 그의 열정에서 탄생되었다.

지금의 그를 있게 한 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의 연극인생 40년을 맞아 2004년 후배들이 함께 마

련해준 허영길 연극인생 40주년 기념 공연 '뇌우'를 잊을 수 없다.

1934년 발표된 중국 극작가 조우의 대표작 '뇌우'는 70년대 허영길 씨가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욕심이 났지만 공연기회가 없었다. 그의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오랜 숙원을 풀어낼 수 있었다.

연극인 허영길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무대결혼식이다. 1977년 7월 1일 시민회관 소극장, 극단 전위무대의 제 14회 정기공연인 '내 사랑 마리' 공연 중 부산 연



연극인생 40주년을 기념해 중국 극작가 조우의 대표작 '뇌우'를 초연했다.

극계에서 처음으로 무대에서 결혼했다. 주례는 당시 예총 지부장이었던 박두석 선생(작고)이 맡았고 깜짝 이벤트에 연극인은 물론 관객들이 모두 하객이 되어 그의 결혼을 축하했다.

“그때 결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연극인이니 돈이 없었지. 시민회관 관장님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야.”

1994년에는 그가 주례가 되어 부산레퍼토리시스템에서 함께 활동한 후배 김익현과 백정임의 결혼식이 시민회관 무대에서 또 한번 열렸다. 자신이 연극판으로 끌어들인 신랑, 신부가 지금도 잘 살고 있어 항상 흐뭇하다.

허영길 씨는 2004년부터 남천동에 위치한 SH공간소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극장이 주택가와 대학이 가까이 있어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편이지만 극장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라 극장 운영에 고민이 많다. 처음 개관 당시에는 연극애호가인 건물주의 후원으로 임대료 걱정이 없었지만 건물주가 바뀌면서 형편이 많이 달라졌다. 다행히 무대에 올리는 공연 마다 객석 점유율이 70%를 웃돌고 있다.

“극장은 쉬지 않고 좋은 작품 만들어서 관객들이 우리 극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관객이 외면하는 연극은 생명이 짧다. 그는 요즘 연극 관객들의 취향이 변하고 있는 만큼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허영길 대표는 앞으로 희극이든 비극이든 재미있게 만든 연극을 올려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흥행성도 유지하는 작품을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무대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인간 군상을 만들어 낸다.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는 무대에서 그는 에너지가 넘친다. 무대에서만은 아직은 청춘이라고 자부하는 허영길 선생. 그는 기억력이 없어질 때까지 관객들에게 연극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오래도록 만나고 싶다.

정말 풍성한 가을 시, 가을 노래

민립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가을이 가져다주는 소슬함과 황량함 때문인지 가을을 소재로 한 시나 노래도 이루 다 손꼽을 수 없이 많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눈이 나리면 어이 하리아/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아//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네가 가던 그날은/나의 가슴이/가녀린 풀잎처럼 설레이었다//하늘은 그린 듯이 더욱 푸르고/네가 가던 그날은/가을이 가지 끝에서 울고 있었다//구름이 즐고 있는/산마루에/단풍잎 발갛게 타며 있었다//네가 가던 그날은/나의 가슴이/부질없는 눈물에/젖어 있었다.〉

앞의 시는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이고 뒤의 것은 김춘수 시인의 〈네가 가던 그날은〉이다. 두편의 시가 다 조락(凋落)과 별리(別離)의 가을을 슬프고 이슥고 눈물겹도록 노래한 명편(名篇)이라고 하겠다.

가을을 노래한 가곡 또한 명편이 적지 않다.

〈그리워 그리워 찾아와도/그리운 내님은 아니 뵈네/들국화 애처롭고/갈꽃만 바람에 날리고/마음은 어디고 부칠곳 없어/면 하늘만 바라 본다네/눈물도 웃음도 흘러간 세월//부질없이 헤아리지 말자/그대 가슴에 내가/내 가슴에 그대 있어/그것만 지니고 가지구나/그리워 그리워 돌아 와서/진종일 언덕길을/헤메다 가네〉

이은상 작시 채동선 작곡의 노래이다. 그리운 내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 왔건만님은 간곳 없어 만나지 못하고 진종일 언덕길만 헤메다 그냥 간다는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과 사연을 담고 있다. 본래 이곡은 정지용 시인의 〈망향〉이란 시로 곡명이 달랐으나 정지용 시인의 시가 금지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은상 시로 가사를 바꾸고 곡명도 〈그리워〉로 바꾸었다.

〈망향〉의 가사는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산쟁이 알을 품고/뼈꾸기 제철에 울건만/마음은 제고향 지너지 앓고/면항구로 떠도는 구름/오늘도 뒤틀에 홀로 오르니/한점 꽃이 빙그레 웃고/어릴 때 불던 풀피리소리 아니 나고/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로 되어 있다.

작곡자 채동선 선생은 전남 벌교 출신으로 1924년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뒤 곧 바로 독일로 유학, 전공을 음악으로 바꾸었다. 그로부터 리하르트 하르세에게 바이올린을, 빌헬름 클라테에게 작곡법을 사사(私事)하는 등 본격적인 음악수업을 마치고 1929년 귀국했으나 일제의 압정이 더욱 심해진 때라 고향에서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 줄 수가 없었다. 경기고보에 다니던 18세때 3·1운동에 참가했던 그였



기에 외국에 유학, 고등교육을 받고 귀국했으나 요시찰(要視察) 인물로 지목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가지 제약과 감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제의 눈에 띄는 곳을 피해 서울 성북동에다 조그마한 농장을 마련해 놓고 작곡에만 전념했으며 이때부터 이 가곡이 구상되었을 것으로 그의 가족들은 말하고 있다. 이곡은 일제하 1936년에 발표되었는데 원 가사 <망향>이나 개제된 가사 <그리워>가 다 함께 나라 잃은 민족의 애절(哀切)함과 비통(悲痛)함을 피땀하게 호소하고 있다. 채동선은 철저한 선비형 지절(志節)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 예로 귀국 후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했는데 독일까지 유학을 갔다 온 당시로 보서는 최고의 하이칼러 신사가 사모관대에다가 인력거(人力車)가 아닌 당나귀를 타고 우리고유의 의식으로 혼례를 올린 일이며, 그 후 평생을 한복만 입고 지낸 일 등이 그것이다.

가곡 <그리워>를 무대에서 처음 노래한 사람은 그의 누이동생인 소프라노 채선엽(전 이화여자대학교수)이었다. 채동선은 해방과 더불어 작곡활동에만 전념, 몰두했고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에서 후진을 가르쳤으며 1953년 피난생활 중 부산에서 작곡하였다.

가을을 소재로 한 가곡을 말하면서 정인섭 작시, 현제명 작곡의 <산들바람>과 이병기 작시, 이수인 작곡의 <별>을 빼놓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두 가곡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의해 불리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곡이다.

<산들바람이 산들분다//달 밝은 가을밤에/달 밝은 가을 밤에/산들바람 분다/아 -너도 가면 이 마음 어이해//산들바람이 산들 분다/달 밝은 가을밤에/달 밝은 가을밤에/산들바람 분다/아 -꽃이 지면 이 마음 어이해>

<바람이 서늘도 하여/뜰앞에 나섰더니/서산 머리에 하늘은/구름을 벗어나고/산뜻한 초사흘달이/별과 함께 나와 오더라/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저별은 뉘 별이며/내별 또 어느게요/잠자코 홀로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산들바람>의 작곡자 현제명에 대한 소개는 이미 상술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별>의 작곡자 이수인에 대한 소개만 하려한다. 작곡자 이수인은 마산시 대성동 1가 13번지 무학산 아래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린 시절 경남 의령에서 자랐다. 마산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음악에 유별난 애정을 갖고 그룹 활동에 앞장섰으며 이때부터 작곡에 손을 대어 소월의 <먼후일> 등 일련의 작품을 남겼다. 서리벌예대에서 김동진, 이흥렬, 김대현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1961년 작곡과를 졸업했다. 그 후 그는 가곡에 심취, 박목월 시인의 <운사월>과 <그리움>, 최재호 시인의 <들국화>, 김광섭 시인의 <마음>, 김춘수 시인의 <부재(不在)>, 김재호 시인의 <고향의 노래> 등 명가곡을 많이 남겼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의 풍요만큼 가을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도 정말 풍성하기만 하다.

미국을 감동시킨 우리의 연주자들

이승주 · 클래식 연주기획자

이곳 미국은 정말 거대하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곳이다. 모든 것이 넘칠만큼 풍요로우며 모든 것이 거대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대한민국보다 크다고 하면 이땅의 거대함이 느껴질까? 하루 이틀 정도만 이곳에 머물러도 이들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애국심 또한 특별하다. 그 거대함에 대한 자부심이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곳의 공연장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탐나는 곳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대로 옮겨 가져가고 싶을만큼 외관과 내부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프로그램마저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부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는 우리 연주자들의 소식은 부러움을 자부심으로, 자부심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채워주는 것 같다.



LA코리타운 전경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미국 Gulfport / Saenger Theatre에서 베토벤을 연주하다

젊은이다운 거침없는 움직임 보여주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가 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그와 그의 연주력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에게 이제 더 이상 신예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됐다. 그의 연주에는 힘이 있으며, 연주를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연주력을 지녔다. 아직도 얼굴에는 여드름이 남아있는 앳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연주는 과히 놀랄만하다.

청중들을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할 줄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올해 1월 미국 미시시피에 있는 Gulfport에 초청되어 Gulf Coast Symphony Orchestra와 함께 연주를 하고 돌아왔다. 이날 바이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2004년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 입상했다.

리니스트 권혁주가 들려준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작품 61이다. 이 곡은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 장대함은 바이올린 협주곡의 최고봉이라 불리울만 한데 그는 여기서 바이올린의 성능을 최대한 구사했다. 큰 규모의 구상에 풍부한 감성과 현란한 기교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한 이곡의 묘미이다.

이 날의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의 뛰어난 보잉과 테크닉을 갖춘 연주는 미시시피강을 날으는 새처럼 자유로웠으며 강하고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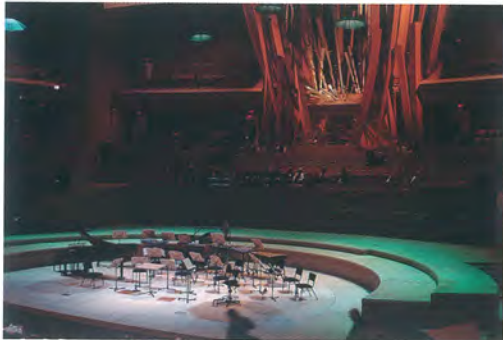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를 사석에서 보면 정말 평범하다. 인터넷을 즐기고 일분에 한번씩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피어싱을 좋아하고 또 록 음악을 즐겨듣는 그를 만나게 된다. 그의 미니홈페이지는 1,000명이 넘는 일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대학생 모습 그 대료이다.

하지만 그를 무대에서 만날 때는 또다른 모습의 권혁주를 만나게 된다. 음악에 무대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프로다우며 카리스마가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한다. 본인이 즐겨워야지 상대방에게도 그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2004년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바이올린 콩쿠르 입상, 그리고 11세에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콩쿠르에서 인정을 받았다. J.B.Guadagnini, Turin 1774를 금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아 사용



월트디즈니의 공적을 기려 건설된 LA의 디즈니홀은 3,0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된 관광명소이다.



캐나다 출신의 건축가 Frank O. Gehry의 최신작인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홈그라운드 디즈니홀 내부.

하고 있으며 2004년 대한음악협회 올해의 신인상과 2006년 제 2회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했다.

소프라노 박미혜 6월 미국 LA Disney Concert Hall에서 KASO와 협연

2003년 10월 세계적인 음악시설인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이 LA다운타운에 완성되었다. 캐나다 출신의 저명한 건축가 Frank O. Gehry의 최신작이자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홈그라운드인 이곳은 미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월트디즈니의 창립자 월트 디즈니의 공적을 기려 건설되었다.

공사비만 무려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됐으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번쩍번쩍하는 외관이 특히 눈길을 끈다. 메인홀은 2,265석 규모이며 음향시설은 일본의 대표적인 음향 설계사 도요타가 맡아 진행했다. 연간 150회 이상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이벤트도 끊이지 않고 열린다. 디즈니홀은 LA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로서도 자리를 잡았다.

지난 6월 14일 소프라노 박미혜가 이곳에 초청되어 디즈니홀 데뷔무대를 가졌다. 이날 소프라노 박미혜가 들려준 곡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순수한 어린 시절의 숙명적 사랑이야기와 슬픔을 표현한 아름다운 곡인 '가세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를 시작으로 베르니의 '카플레티가와 몬테기가'를 불러주었다.

이 곡은 줄리엣이 로미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통곡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곡인데 박미혜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선율을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불러 환호를 받았다. 못내 아쉬워 하는 이들을 위해 소프라노 박미혜는 김동진의 동심초를 끝으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소프라노 박미혜의 목소리는 특별함이 있다.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심어 준다. 언제나 소녀 같은 외모에 가끔은 어떻게 저런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 싶다.

이날의 연주 역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청중에게 다가갔으며 청중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치 파티처럼 즐거웠다고 한다. 음악으로 축배를 들고 음악으로 감사를 나누며 음악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다.

LA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곳이다. 서울시 LA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LA는 많은 교포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은 차이나타운과 리틀도쿄를 합친 것보다 5배 정도 크며, LA에서도 중심지역으로 더욱 번창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한번쯤 둘러본 이들이라면 정말 이곳이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하는 곳인가 할 정도로 우리 한인사회가 번창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타국에서의 생활을 한번쯤 해본 이들이라면 이곳이 그들의 눈물과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느껴져 코끝이 찡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 한인사회의 문화적, 교육적 그리고 생활수준은 가히 놀랄만큼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백인들 위주로만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역시 보수적이며 배타적이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한 이들과 함께하는 무대여서 아마 이번 무대는 서로에게 참으로 의미있지 않았나 싶다.

소프라노 박미혜는 현재 서울대학교 음대교수로 재직 중이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원, 뉴욕시티오페라 단원,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전속 솔로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디즈니홀 초청연주회를 가진 소프라노 박미혜. 그의 목소리는 특별함이 있다.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 글쓴이 이승주는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예술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프리랜서로 클래식연주기획, 쉐블론 클래식매니지먼트사의 SMC Magazine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전통음악은 변율(變律)에 자연미가 있다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 강사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연주가 자연미가 있다는 말을 하면 대개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 이유는 자연미란 단어가 인위적인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점이 자연미일까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이 단어이다. 그런데 전통음악의 특징을 말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우리 음악은 '자연미'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미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잠깐 이 말을 율(律)에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전통음악에서 자연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거론한다면 조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율에는 평균율과 불평균율이 있다. 평균율은 서양음악사에서 바흐(1685~1750) 이후로 시작된 조율법이다. 이에 반하여 불평균율은 바흐 이전의 음악으로 서양의 순정율이나, 중국의 삼분손익율, 그리고 우리 전통음악의 조율이 이에 해당한다.

평균율이란 한 옥타브를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 놓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피아노의 음정을 말한다. 평균율은 음정을 동일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키(Key)나 조(Mode)가 바뀌어도 정확한 음 높낮이와 음정만 인식되어 있으면 불평균율보다 쉽게 음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균율은 기초적인 음정 연습이나, 규모가 큰 관현악단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조율법이다. 그런데 평균율은 음의 간격을 균등하게 쪼개 놓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을 받는다. 이는 마치 규칙이 똑 같은 돌로 담을 쌓으면 정결하게 보이거나 자연미가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불평균율이란 어떤 것일까? 불평균율은 평균율과 반대로 음정이 긴 것과 작은 것 등으로, 다시 말하면 한 옥타브 내의 각 음정이 균등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불평균율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에서 키나, 조가 바뀌면 어떤 음은 본래 정해진 음보다 조금 높거나, 또는 낮은 음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야만 그 음악의 맛, 즉 풍(Style)이 나오는데, 이때 본래의 음보다 조금 높거나 낮게 내는 음을 변율이라고 한다. 불평균율에서 변율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우리는 가끔 큰 돌과 작은 돌로 이루어진 전통 토담을 보면 자연미를 느끼곤 한다. 그것은 규격화된 돌담보다 크고 작은 불규칙한 돌담이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다. 자연이란 원래 크고 작은 음양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 토담에서 큰 돌과 작은 돌로 이루어진 것 외에도, 사이사이 박힌 작은 조각들은 자연미를 더욱 충족시켜 준다. 이는 마치 음악에서 변율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과 같다.

일찍이 중국의 북송 때, 4대 유학자 중 한 사람인 '장횡거'는 <성리대전> 중 <율려신서>에서 '율을 아는 데는 덕성이 순박하고 중후한 사람만이 그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橫渠張氏曰 律呂有可求之理

德性淳厚者 必能知之). 실로 불평균율에서 변율의 음높이와 음정을 정확하게 이는 길은 많은 연습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성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가끔 전통음악을 연주하는데 신곡같이 연주한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이 말을 새겨보면 음정은 평균율과 같이 고정된 음으로 연주하고, 리듬 또한 전통적 리듬이 아닌 서구식 리듬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겠다.

또한 전통음악에서 정음, 즉 정음에 소홀하면 주선율이 흔들리고, 변율에 소홀하면 음이 흐릿하게 들리는 경우를 가끔 경험한다. 필자는 우리 음악에서 안정되고 선명한 울을 들을 때 자연미가 느껴진다. 자연은 늘 말없이 머금고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무의미한 신곡과 분에 넘치는 악기개량으로 전통의 자연미를 잃어가고 있다. 새로움의 반이라도 전통의 특징을 찾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음악에서 평균율은 평균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서양의 실내악 연주자들이 불평균율인 순정율을 고집하는 이유는 음악에서 궁극적인 미가 자연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토담에 울의 자연미가 있다.



범패와 불교무용

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바라춤은 바람을 맞부디치거나 비벼서 내는 소리가 춤의 리듬 속에 장중한 멋을 더해준다.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범패는 범서를 찬탄하는 말로써 '어산'이라 한다. 범패는 불교의식의 진행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음악을 총칭한다. 범패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로서 노랫말은 한문이나 진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한문의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한다.

범패는 안채비와 바깥채비 그리고 화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비는 순수 불교의식절차로서 불교의 진리를 통해 불교의식 목적에 접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바깥채비는 홀소리의 안채비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과 안채비 후의 그 내용을 정리하는 구성을 갖고 있으며 고차원적인 불교음악으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72종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15종류만이 전해지고 있다.

화청은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참회하고 소원을 빌어 범회를 개설한 목적을 성취케 하기 위한 의식으로 우리말로 소리하며 우리고유의 음악을 활용한다. 범패는 특히 국악의 성악을 대표하는 전통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본을 배우는데 만도 3년이 걸리는 고행의 예술이기도 하다.

불교무용을 뜻하는 작법무는 제의식의 장엄함을 더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무용이다. 기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천사색의 채화를 내리니 그의 제자인 가섭이 알아차리고 빙긋이 웃으며 춤을 춘 것을 승려들이 모방했다는 설이 있다. 또 중국의 조자건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는데 고기떼가 그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므로 그 소리를 모방해 범패를 짓고 고기떼의 노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 승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종교의 의례로써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영단에 모셔진 감로탕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리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신업공양으로써 스님들의 작법을 찾아 볼 수 있다. 한 스님은 바라무를, 어느 스님은 나비무를, 어느 스님은 범고무 등으로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볼 때 무의 역사는 불교문화와 더불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작법무의 역사는 분명치 않으나, 작법무가 범패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해왔음을 추론해 볼 때 우리범패와 작법무는 1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11년 조선 총독부 사찰령으로 인해 면면히 이어 내려왔던 전통적 불교의례인 범패와 작법의 금지, 그리고 해방 후 불교분쟁과 더불어 염불승에 대한 등한시 등으로 쇠퇴의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태고종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를 중심으로 몇몇 사찰에서 그나마 맥을 이어오면서 전

승되었다.

작법무는 어장스님의 청아한 범음성과 함께 어우러져 넓은 야외 법당에서 스님의 가냘픈 몸매에서 무를 일으킨다. 작법무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타주무이다.

1)바라무

하얀 장삼에 붉은 가사 녹색 띠를 두른 복식과 두 손에 바라를 들고 장중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몸을 놀리는 이 춤은 색감과 움직임이 모두 들뜨지 않는 속에서 화려함을 끌어낸다. 발은 외로 도나 언제나 고무래 정자로 떼어놓고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굴절시키며 바라를 놀린다. 무릎과 허리 놀림이 덩실덩실하고 발놀림이 또박또박 장중하다.

바라를 맞부딪치거나 비벼서 내는 소리가 춤의 리듬 속에 장중한 멋을 더해 주며 바라가 지닌 쇠소리는 종이나 요령처럼 쟁그랑거리지도, 징처럼 크지도 얹으면서 부드럽고 쓰다듬는 맛이 난다.

2)나비춤

천상천하의 모든 신과 일체의 만물들 중 소생하지 못한 중생들을 불러들여 죄를 참회시키며 선업을 쌓게 하는 목적으로 추어진다. 따라서 바라춤, 나비춤 등은 그 움직임이 정중하고 엄격하여 무념으로 추는 것이지만 그 춤사위는 정형화된 선적 내용을 상징하고 있다. 일례로서 춤사위의 기본은 발을 정자형으로 딛는 것이며 주 동작은 원만을 상징하기 위하여 원으로 도는 것과 자비를 상징하기 위하여 손을 모았다 폈다 하며, 귀의를 상징하기 위하여 몸을 굽혔다가 폈다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이다.

3)법고춤

법고는 대종, 운판, 목어 등과 같이 불교의 4법 악기를 두드리면서 치르는 의식 중 축생의 구제를 위하여 따로 떼어 불인 이름이다. 대종은 지옥중생을 위하여, 목어는 수중중생을 위하여 두드리는 의식의 일종이다. 법고를 두드리면 불덕 찬양하고 세간 중생의 제도를 기원하는 스님들의 움직임은 저절로 장엄한 춤이 된다. 북 가락이나 몸짓은 어디까지나 예불의 법도 그대로지만 같은 북소리에 단순한 가락이면서도 힘과 멋이 느껴지며 북가락과 함께 합장하여 나아가고 물러서며 북을 치는 몸의 움직임과 장삼자락의 흔들림이 시원시원 거침이 없다. 일정한 장단과 리듬이 없이 범패를 반주로 하여 춤을 추며 대부분 법당 안에서 진행되지만 무대에서도 보여지기도 한다. 부처님께 드리는 신공양이기 때문에 관중은 의식하지 않으며 조용한 가운데서 진행된다.

4)타주무

타주무는 나비무의 법복을 입은 두 스님이 무를 하기 때문에 나비무의 범주에 넣기도 하지만 의식의 내용 자체가 구분되기 때문에 타주무라는 종류로 다시 구분하였다.

타주무는 춤을 추는 두 스님이 타주체를 하나씩 든 채로 팔정도를 뒤로 한 채 앉아 있다. 타주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올렸다가 오른쪽 어깨 위로 채를 올린 후 팔정도를 중심으로 세 번 돌다가 제자리에 서로 마주본 후 서서, 타주체를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올렸다가 서로 등진 채 다시 서거나 앉는다. 이러한 계속된 동작이 끝난 후 팔정도를 옆으로 넘어뜨린 후 나비무와 요잡바라를 춘다. 타주무는 영산재 가운데 식당작법에서만 행해지는 의식이다. 식당작법이란 영산재 의식 중에서 재에 참여한 스님과 대종은 물론,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절차로 수행자는 과연 공양물을 받을만한 몸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지옥, 아귀, 축생에 이르기까지 불법과 공양을 베푼다.

숨어있는 말, 의미들

- 김성룡의 그림 〈소년〉 125x95, 종이에 혼합재료 -

김형술 · 시인



김성룡작 '소년' (125X95, 종이에 혼합재료)

이제 막 유년기를 지나 청년으로 가는 길목에 접어든 아이, 즉 소년의 존재는 참으로 미묘한 것이다. 흔히들 천사 같다고 표현하는 유년의 순수한 시기를 지나 자신이 더 이상은 천사의 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등 떠밀려 천사의 영역에서 추방당한 존재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시기인 탓이다. 누구나 소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그건 어찌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의 통과 의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년을 갖 지나온 소년의 시간이 갖게 되는 기억이나 상처 혹은 자극들은 사람의 일생에서 쉽사리 지워지는 종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소년의 내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것들에 예민하게 대응하게 되는 그 무엇, 이를테면 자아라고 불릴만한 내면의 움직임을 자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년의 감각은 대단히 예민한 상태이다. 유년기엔 아무렇지도 않았을 세상

의 모든 현상들과 의미들은 이제 소년에게

대단히 새롭고 낯선 것들이 되어버렸다. 불어오고 가는 바람과 모이고 흩어지는 구름들, 지금 막 피었다 싶으면 어느 새 지고 마는 꽃들, 지상의 모든 그림자들을 지우고 씻는 빗

즐기가 지나간 후 더 짙은 눈부심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우는 햇빛...그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소년에게 더 없이 낯설고 신기하며 더러 두렵기조차 한 것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런 의식의 움직임과 함께 찾아오는 육체의 변화는 또 어떠한가. 자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성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은 때로 공포와 죄의식의 느낌까지 겹치게 마련이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중간단계에 이제 막 진입한 소년의 내부엔 쉽사리 표현하기 힘든 막막한 동경과 열정의 소용돌이가 이는가 하면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어떤 자신만의 비밀이 자리를 잡기도 한다. 그건 처음으로 알게 되는 세상의 어떤 이면이기도 하고 어렵뜻하게나마 알게 될 것도 같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매혹일 수도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년들은 무언가를 향해 이유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채로 찾아드는 슬픔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딱히 설명할 순 없지만 무언가 삶의 비밀을 알아버린 듯한 느낌으로 인해 교차되는 불안과 환멸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 혼돈의 시기를 일러 세상은 思春期라 명명하지만 봄(春)에 관해 생각한다(思)는 아름다운 이름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 공포스런 어떤 요소들이 빼곡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때때로 간과하기도 한다.

화가 김성룡의 그림 〈소년〉에서 이제 막 유년의 햇빛 속을 빠져나와 세상의 그림자들과 대면하는 한 어린 자아의 혼돈과 불안을 읽는다. 소년의 눈빛은 어린 아이처럼 여전히 맑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 두려움, 질시, 환멸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 그 눈빛은 세상을 동경하고 경원하는 눈빛이기도 하고 가까스로 두려움을 감추는 눈빛이기도 하며 이제 막 세상의 어떤 추한 이면을 발견하고 자각한 환멸의 눈빛이기도 하다. 아직은 남녀의 뚜렷한 성징이 드러나지 않은 소년의 외모에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남성적인 강인함이 뒤섞인 체이다. 굳게 다물어진 입술엔 여전히 섬세함이 남아있지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시선에선 고집스러움과 강인함이 엿보이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굴에서 소년은 이제 막 무성의 평화지대에서 전투적이며 동시에 방어적인 남성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의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지운 채 더러 낯설고 그로데스크한 그림들을 그려온 화가 김성룡의 그림들 속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시적인 매혹이 풍부하게 깃들어 있다. 그런 매혹은 어쩌면 사물과 존재와 풍경이 가진 본질, 즉 눈에 보이는 외면들 속에 깊숙히 잠재된 것들을 적확하게 꿰뚫어 형상화하는 타협없는 시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추하거나 아름답거나 공포스럽거나 사랑스러운 모든 존재들이 숨기거나 감춘 의식들, 본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시선. 그런 시선을 가진 그림들 속에는 말로 쉽사리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함의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숨어있는 것들에 관해 그림 속 소년의 얼굴은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중이다.

고은이 엄마

유상훈 · 연극배우

2~3년 전인가 연극제작에 참여한 결과로 원룸 오피스텔 전세금을 날리고 이 골목 끝 월세방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런대로 적응의 날들을 보내는데 어느 휴일 아침 요란스런 목소리에 작심하던 늦잠을 빼앗기고 잠을 깬다. 한 두어 옥타브는 올라갔을까, 드높은 여자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있었다. 부부 싸움을 하는 모양이었다. 말의 내용까지 소상히 들려왔다.

찢어지는 여자의 목소리에 비해 드문드문 들려오던 외마디 남자의 버럭 화내는 소리들이 이어지고... 어찌되었던 그로부터 심심치않던 그 여인의 목소리는 이 골목의 평화를 깨부수어댔다. 특히 연휴가 끼인 마지막 휴일 날은 어김없이 싸움이 벌어졌다. 듣기만 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이어 집기 부서지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떤 날은 밤 열두시가 넘어 경찰이 달려왔다. 싸움 중에 둘 중 하나가 경찰을 부른 모양이다. 와서 보니 피가 터진 부부싸움이라 이도 저도 못하고 난처해 있는 경찰 앞에 남자의 목소리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두 옥타브 여인의 정신병력에서 부터 이혼 문제로 마지막 법정출두를 미루고 있을 따름이며 이미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은지는 오래된 일이라는 등... 그 곁에서 지쳐있는 여인의 목소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니가 먼데 날 때리노, 뭐 해준게 있다고, 니가 머언데 날 때리노오." 이들에게 자식이 둘 있는데 큰애가 여덟아홉 살 쯤 된 여자아이 고은이고 그 아래 오후 서너시면 태권도 학원 봉고차를 타러 달려 나오는데 여섯 살박이 머슴애가 있다. 고은이가 집을 나서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즈음 고은이 엄마는 날카롭고 높은 음성으로 가끔 이름을 불러대곤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안다. 고은이 엄마는 고은이가 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큰 소리로 고은이를 불러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그 소릴 듣고 고은이는 돌아오곤 했다.

그 두 남매는 종종 집안에서 놀다 엄마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저희끼리 싸운 건지 고은이 엄마의 "나가" 하는 비명 같은 고향소리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시간과 날씨에 상관없이 집밖으로 쫓겨나와 울고 서있기가 일쑤다. 새벽 동이 틀 무렵쯤 혹은 아침에 고은이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듯 하였고 고은이 엄마는 해가 지면 나가서 밤 열두시 혹은 새벽 한두 시에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골목길을 들어서 조용히 골목길 내 방 건너편 아래층의 샷시문을 열고 들어간다. 한 낮에 가끔 고은이 엄마는 트로트 신곡을 몇 번이고 되풀이 틀어놓고 그 노래를 따라 배우는 소리가 들린다.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고은이 부모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휘청 한쪽 벽으로 휘어지듯 붙어 비켜 가는 야윈 목덜미의 고은이 엄마나 새키망게 타고 바짝 야윈 고은이 아빠의 머물지 못하고 흔들리는 눈길의 모습들이 낯설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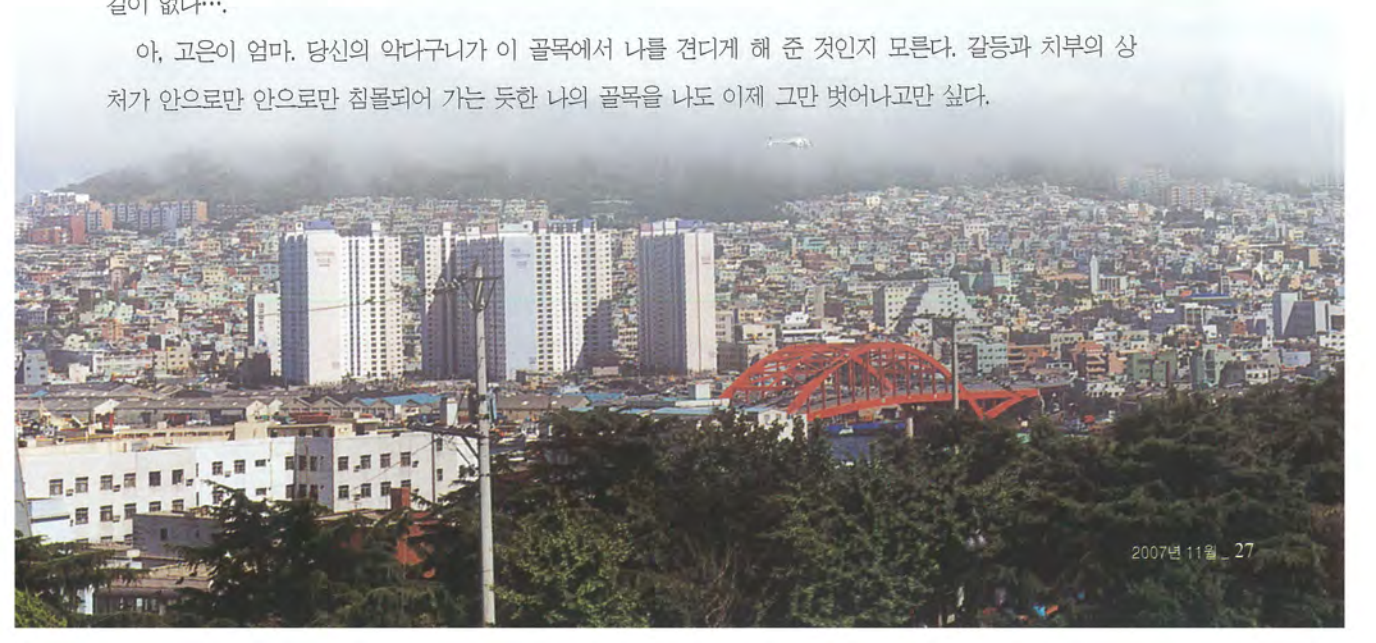
않았다.

저렇게 찌지고 볶고 싸우고 정신병원이 어쩔고, 치고 박고 경찰을 부르고 법원 출두 고지서가 날아오는 고은이 엄마도 골목길 저기서 들어서서 구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빠 왔다” 말하면 잠시 후 여지없이 저 문을 열고 들어서서 고은이 아빠. 늘 싸우다 매번 엄마한테 집박을 쫓겨나던 남매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면 그 곁에서 “그만 좀 해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빠가 오면 종달새처럼 “아빠”하고 그를 맞이한다.

따닥따닥 새집 같은 골목에 집집마다 그렇게 도를 너머 서지 않고는 모여 살지 못할 가족이란 이름들이 모여 있는가 하고 비감해 하는데 얼마전 아침 푹푹 푹푹 집 나르는 소리가 나더니 고은네 집 문이 잠기고 “퇴거하였으니 우편물 넣지 마세요”라는 글이 나붙었다. 그러고는 몇일 후 주인집을 찾아온 고은네 부부는 돈 문제였는지 몇 마디 고성어 오고가더니 고은이 아버지가 소릴 지르며 골목길을 뛰쳐나갔는데 “우린 쫓겨났어. 그래 느그는 자식 안 키우는지 어디 두고보자.” 그 뒤를 쫓아 나오는 주인아주머니한테 “우리가 워낙 잘못된 게 많아 가지고... 글썄 노인분들 모아놓은 주머니돈까지 빌려다 쓰고서는...” 조근조근 뒷말을 거두는 고은이 엄마.

그렇게 그들은 이 골목에서 사라져 갔다. 이후로 이 골목엔 더 이상 찢어지는 두 옥타브 고음은 고사하고 횡 하니 울리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절간이다. 더 이상 이 골목은 사람이 사는지 어쩐지 알 길이 없다...

아, 고은이 엄마. 당신의 악다구니가 이 골목에서 나를 견디게 해 준 것인지 모른다. 갈등과 치부의 상처가 안으로만 안으로만 침몰되어 가는 듯한 나의 골목을 나도 이제 그만 벗어나고만 싶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혼이 담긴 마산시립문신미술관

마산 앞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마산시 추산동 언덕에 자리잡은 마산시립문신미술관.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작품과 예술혼이 남아있는 이 곳은 문화도시 마산을 꿈꾸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조각가 문신 선생은 미술의 본고장인 파리에서 '좌우대칭의 정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기하학적 추상 조각'으로 이름을 알린 세계적인 조각가이다. 추상조각이면서도 곤충이나 새, 꽃 등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들은 간결하면서도 풍만한 선, 대칭과 균형, 곡선의 아름다움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문신 선생의 예술적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산시립문신미술관은 지난 1994년 12월 문을 연 문신미술관이 그 전신이다. 문신미술관은 지난 1980년 20여년간의 파리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문신 선생이 그의 고향인 마산에 내려가 손수 지은 개인 미술관으로, 마치 조각작품을 다듬고 새겨 가듯 14년이라는 긴 세월 많은 애정과 노력속에 탄생됐다. 그러나 다음해인 1995년 질병으로 문신 선생이 타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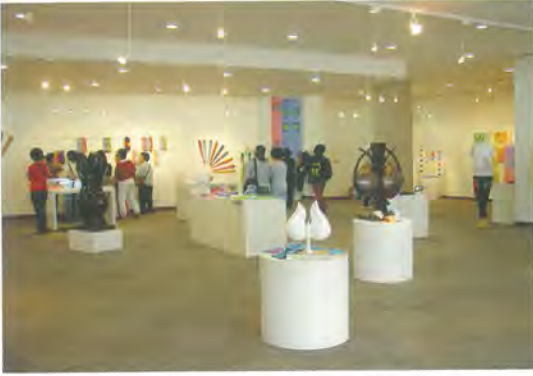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미술관을 마산시에 기증하면서 지난 2004년 4월 30일 마산시립문신미술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마산시립문신미술관은 대지 2,100여평에 2개의 전시관과 야외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관인 제 1전시관은 미술관과 함께 기증된 문신 선생의 작품 2,500여점이 년중 전시되며, 제 2전시관은 기획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으로 꾸며진 야외전시장은 문신 선생의 대형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작품감상과 함께 자연속의 휴식공간으로도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산시립문신미술관은 전시장으로서 뿐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학술심포지움, 문신미술상 등 문화, 학술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을 추모하는 '문신미술 영상음악 국제축제'가 지난 8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기도 했다.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작품과 예술혼이 남아있는 마산시립문신미술관은 두개의 전시관과 야외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마산시립문신미술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학술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사진은 어린이 조각체험교실)

지난 4월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실기교실이 개최됐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미술실기교실은 화가 최지영 씨의 지도로 수묵화 교실이 열렸는데 시민 30명이 참가해 6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기도 했다.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어린이 조각체험교실'이 열리기도 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어린이 조각체험교실'은 경남대학교 임형균 교수의 지도로 '석고조각 만들기' 체험을 가져 평소 잘 접해볼 수 없는 미술체험에 많은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8월 29일 마산MBC홀과 30일 마산시립문신미술관에서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앙상블 바덴바덴의 초청연주회가 바로 그것.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부수석 6명으로 결성된 앙상블 바덴바덴과 문신 선생의 특별한 인연은 한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9월 바덴바덴 시에서 열렸던 문신 조각전에서 우연히 선생의 작품을 보게된 연주자들이 감명을 받아 결성된 단체가 바로 바덴바덴앙상블이다. 이들은 선생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추모곡을 전시가 끝나는 날 연주하기도 했다. 바덴바덴앙상블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8월 11일 바덴바덴시에서 음악과 미술, 영상을 결합한 대규모 '문신미술 영상음악 국제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문신 선생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4월 독일의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또다른 단체인 앙상블 시메트리도 내년 9월경 초청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그의 마산시립문신미술관에서는 매년 5월 문신미술상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문신미술상은 그동안 수상자를 내지못했던 1회를 제외하고 올해 수상자인 조각가 이갑열(경상대 교수)을 비롯해 노재순(성심여대 교수), 김광우(동아대 교수), 이두식(홍익대 교수), 박대성(한국화가)등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마산시립문신미술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문신 토탈 아트페스티벌 인 마산'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신 선생의 작품을 유명 디자이너들이 아트상품으로 개발한 보석과 패션 2,000여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11월 4일까지 계속 열릴 예정이다. 11월 13일에는 프랑스 몽벨리아드미술관 베르나르 포실 관장과 경남도립미술관 박은주 관장이 발제를 맡은 문신국제학술포럼이 개최된다.

■문의 / 마산시립문신미술관(055-240-2477)

리코더 대중화를 꿈꾸는 부산리코더아카데미



소통되는 리코더 음악과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마음을 뭉친 부산리코더 아카데미.

리코더는 소박하면서도 목가적인 음색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악기이다. 비발디, 텔레만, 헨델, 바흐 등 당시 대가들의 작품 속에 생생히 남아 있지만 한동안은 시대의 흐름속에 잊혀진 악기가 되기도 했던 리코더는 20세기 들어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악기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롭게 부활했다. 특히 리코

더 수업이 초등학생을 위한 정규 교과목으로 정해지면서 리코더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악기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문을 연 '부산리코더아카데미'는 소통되는 리코더 음악과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마음을 뭉친 리코더 동호회이다. 현재 부산리코더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교사인 강희숙, 공란영, 곽윤희, 박선주, 박주연, 신수진, 안경옥, 이지연, 이채훈, 정난숙, 정상태, 최선경, 최호준, 하소영 등 1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부산리코더양상블과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김인옥), 준비회원, 후원회원 등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리코더아카데미는 매주 한차례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부산리코더양상블은 매주 수요일 동상초등학교에서, 양상블 입단을 앞둔 준비반은 매주 목요일 해운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초등학생들로 결성된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1, 2, 3주 토요일 해운대센텀 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리코더가 좋아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꾸준히 모임에 참석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다. 또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는 준비반 회원들은 오는 12월 입단연주회를 거쳐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정규과목으로 편성되면서 리코더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친숙한 악기가 되었지만 반면 ‘교재용’ 악기라는 선입견으로 악기로서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산리코더앙상블 리더 강희숙(동상초등 교사) 씨.

그런만큼 부산리코더아카데미는 연주자로서의 전문적인 실력을 연마하는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리코더 전문연주자인 임종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 독일 리코더연주가 정희성 씨, 독일 아헨, 마인츠음대 교수인 크리스티안 제어 등 전문 연주가를 초청, 앙상블 레슨과 마스터클래스를 받아오고 있다. 지난 6월 임종환 교수와 함께 연주회 ‘소나기(소리를 찾아 나아가는 기쁨)’를 주관하기도 했던 부산리코더아카데미는 8월에는 독일 플라우탄도 리코더콰르텟 연주회를 부산에서 유치해 일반 시민들에게 리코더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오는 2월에는 세계적인 리코더연주단체인 벨기에 플란더스 리코더콰르텟 내한연주회와 마스터클래스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9월에는 창단연주회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직무연수도 가져오고 있는데, 지난 7월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진 ‘교과서음악 리코더로 따라잡기’는 교사들의 호응이 커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두 차례로 늘일 예정이다.

“연습을 통해 회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여느 동호회와는 다르다”는 회원 최호준 씨(인지초등 교사)는 “무엇보다 리코더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동호회 활동이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연주만 듣고 리코더음악을 평가하는 것은 바이엘이 피아노음악의 전부인양 생각하는거나 똑 같다”며 리코더음악을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무척 안타깝다는 공란영 씨(반여초등 교사)는 리코더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깨고 리코더음악을 알려나가는 것도 부산리코더아카데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리코더는 평생 함께 할 벗과 같은 존재’라는 회원 박선숙 씨(구학초등 교사)는 슬픔도 기쁨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벗 리코더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또다른 벗인 부산리코더아카데미가 있어 행복하다. 이런 벗들과 함께 할 새로운 벗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부산리코더아카데미. 리코더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문의/부산리코더아카데미(cafe.daum.net/busanrecorder), 리더 강희숙(016-562-6561)



부산리코더아카데미는 매주 한차례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부산리코더아카데미는 전문 연주가를 초청, 앙상블 레슨과 마스터클래스를 받아오고 있다.

극단 아센 3인 3색 사랑방정식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극단 아센의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는 구민주, 권철, 김연주가 3인 3색의 서로 다른 사랑방정식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면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연말을 맞아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극단 아센도 마음이 바빠졌다. 극단 아센은 요즘 전용소극장인 미리내 소극장 재 개관 기념공연이 한창이다. 지난 5월 극장 대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폐쇄될 형편에 처한 미리내 소극장을 인수하면서 극단 아센은 큰 변화를 맞았다.

"2000년 극단 아센을 창단하면서 10년 내 우리들의 전용 소극장을 갖는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8년 만에 우리 전용극장을 열고 우리들만의 빛깔을 담은 작품을 올릴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지난해 12월 23일 개관한 미리내 소극장은 극단 미리내 대표이자 중학교 교사였던 연극인 박범식 씨가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심장마비로 쓰러져 연극에 대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작고한 뒤 소극장 운영에 많은 연극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극장이 문을 열기 훨씬 전부터 박범식 씨와의 인연으로 이곳을 연극 연습장으로 이용해온 호민 씨는 생전에 지역 전용소극장 운영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박범식 대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미리내 소극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여름 내내 극장 보수 공사를 거쳐 작지만 아담한 보금자리를 만든 그는 요즘 사직동 주택가에 위치한 소극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중, 장년층을 겨냥한 기획 공연으로 소극장 알리기에 열심이다. 27년간 연극 무대를 지키고 있는 호민 씨는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아센 연극 스튜디오 대표, 부산시립극단 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배우로도 폭넓은 작품활동을 해왔다. 대학시절, 전국대학연극제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연출에 매력을 느끼고 연극을 통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요즘 미리내 소극장에서는 8월부터 시작한 미리내 소극장 재 개관 원, 투, 쓰리 세 작품 중 호민 씨가 연출한 두 번째 작품 '로망스2'가 공연중이다. 공연으로 바쁜 와중에도 그는 틈틈이 11월 28일부터 막이 오를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를 준비하고 있다.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는 2005년 3월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작품으로 무대에 올려져 많은 사랑을 받



미리내 소극장에 동지를 틈 극단 아센은 극장 재 개관 기념공연 마지막 작품 '돌이서, 셋이서, 혼자서'를 준비하고 있다.

은 작품이다. 관객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미 작품성은 검증되었지만 이번에는 3명의 배우 중 2명이 새롭게 작품에 투입되기 때문에 세 배우의 스타일에 맞는 새 옷을 입혀야 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구민주, 권철, 김연주가 3인 3색의 서로 다른 사랑방정식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편과 이혼하여 위자료로 물려받은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테레사와 자유 분방한 그의 남편 로렌조, 테레사 집에 같이 살게 된 20대의 무용감사 엘레나가 펼쳐가는 '돌이서, 셋이서, 혼자서'는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소유욕과 존재욕을

부각시켜 이 시대의 사랑관에 역설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특히 아름답고 재치있는 언어로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대사과 인물간의 심리적인 이중성이 앙상블로 극화되어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 남녀연기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구민주, 권철 두 배우의 호흡이 정말 기대됩니다. 20대 엘레나를 연기할 김연주도 아센에서 4년간 연기수업을 한 믿음직한 배우이죠.”

배우가 바뀌면 작품이 달라지는 만큼 그는 세 배우가 어떤 앙상블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구민주, 권철 두 배우가 연습에 참가하지 못하는 날은 아센 단원인 김연주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무대를 점검하고 홍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렌조로 변신하는 권철 씨는 지난 해 미리내 소극장에서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장기공연을 가진 터라 미리내 소극장과는 친숙하다.

“중, 장년층을 공연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진솔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호민 대표와 마음이 통해서인지 로렌조 역할에 기대가 큼니다. 재 개관한 소극장은 호랑이 아줌마 공연 때보다 더욱 아늑한 분위기로 변해 공연 분위기와도 잘 맞아요.”

'돌이서, 셋이서, 혼자서' 풀어나가는 3인 3색의 사랑방정식은 미리내 소극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부산사랑 동요사랑 펼쳐온 작곡가 박봉렬



80대 황혼을 바라보는 동요작곡가 박봉렬(75세) 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1월 17일, 그의 열정이 담긴 동요곡들을 모아, 씩씩한 선생의 열정에 보답하는 무대를 갖는다.

박봉렬 씨는 동요작곡가 이전에 교육자이다. 1954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사천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첫 부임하면서 교단에 선 선생은 아이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어린이의 눈으로 그들의 기쁨과 슬픔, 꿈과 희망을 노래에 담아낼 수 있었다.

일본에서 태어난 선생은 중학교 1학년 때 귀국했다. 노래를 잘부르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특별히 음악 수업을 받은 적은 없다. 1971년 중등 준교사 음악검정고시에 합

격하기 위해 바이엘, 체르니, 모차르트 터어키 행진곡 등을 혼자서 익히고 엄격한 실기 테스트를 통과했다.

학창시절 브라스밴드 단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트럼펫 수석주자로 진주 개천예술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사천초등학교 재임중 학생들을 이끌고 개천예술제에 참가하기도 했던 선생은 당시 좋은 여건에서 수업한 도시 아이들을 제치고 흰 고무신과 점퍼 차림의 지휘자와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은 시골 아이들이 ‘베버의 사냥꾼의 합창’을 불러 1등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봉렬 선생은 그동안 향사회 회장, 오륙도작곡회 초대회장, 동요사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창작음악을 발표해 왔다. 그간의 음악적 성과로 한국아동음악상 장려상, 한국아동음악상 본상, 동요사랑회 작곡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제 1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오륙도’를 비롯해 들관으로 달려가자, 세계는 우리와 함께 등 19곡을 연주한다. 이번 연주실황은 음반으로도 낼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주회마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심성을 가꾸기 위해 창작곡을 발표기회를 만들어준 배정행 지휘자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말 고마워요.”

50여년간 부산사랑 동요사랑을 펼쳐온 동요작곡가 박봉렬 선생. 항상 새로운 곡을 구상하며 씩씩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북경초대전 갖는 관화가 채경혜

2007 부산국제관화제의 전시감독으로 10월을 여는 때 보다 바쁘게 보낸 관화가 채경혜 씨가 우리나라 관화가로는 드물게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중국 초대전을 갖는다.

“관화가로서는 처음 갖는 초대전이라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작가의 작품을 만날 기회가 적은 중국인들에 우리 작가, 또 제 작품이 어떻게 비춰질지 기대가 큼니다.”

이번 북경 초대전은 지난 2004년 부산국제관화제 출품작가이면서 2006년 중국측 커미셔너로 참여한 바 있는 중국미술협회 부주석이자 중앙미술학원 부서기인 오장강 교수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오장강 교수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채경혜 씨의 섬세한 관화 기법에 놀라 중국 초대전을 제의했다.

즐곧 음악적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는 채경혜 씨는 이번 중국전시에서는 ‘狂想曲-雨奇晴好’란 제목으로 석관화와 묵관기법을 혼용한 최신작 20여점과 그의 초기 작품 등 35점을 선보인다. 전시가 열리는 운꺄러리는 140여개의 화랑이 밀집한 화랑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작품들과 만날 기대로 채경혜 씨도 전시회 준비에 마음이 몹시 설레었다.

“부산과 우리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시가 끝나는 11월 8일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현대 관화의 세계를 보고 부산관화와의 교류를 위해 많은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부산국제관화제 전시감독으로 바쁜중에도 2007 관란국제관화비엔날레(심천, 중국)에 참여했고 북경초대전 직전까지도 10월 12일부터 열리는 GIAF(Gyeongnam International Art Festival)의 국제현대미술티플아트전에 5m의 대작 2점 출품기도 했다.

차곡차곡 쌓아져 화면 가득 채워가는 채경혜의 비의 랩소디. 북경의 전시장에서도 울려 퍼지는 잔잔한 빗소리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적셔줄 것이다.



부산박물관 2007년 특별전시회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10월 5일(금)-12월 16일(일)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



관분양행락도 8폭병풍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산지역 박물관에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조선시대 민화를 통해 선조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전시가 12월 16일까지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국립민속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 전국의 14개 기관에서 엄선한 민화 및 민속품 108점으로, 이 중에는 계명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강산도'와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화조도 병풍' 등 평소 보기 힘든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민화는 우리민족의 삶과 신앙, 멋이 담긴 서민적인 그림으로, 세시 풍습과 기록 등 민속화로서 뿐 아니라 수복강녕과 부귀다산 등 다양한 상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민화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이번 전시에서는 '행복한 가정', '귀한 자식 높은 벼슬', '이미지속에 담긴 교훈', '이상과 현실의 자연', '장수에 대한 염원', '액막이' 등 6개 주제별로 작품이 전시된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화조도(花鳥圖)와 어해도(魚蟹圖), 그리고 정초에 대문에 붙여 가정에 복을 부르는 그림인 운룡도(雲龍圖) 등 부부화합과 다산(多産), 수복강녕(壽福康寧)과 부귀 등 인간의 공통적인 소망과 다복한 가정에 대한 염원을 담아낸 작품이 전시되며, '귀한 자식 높은 벼슬'에서는 화조도(花鳥圖)와 많은 사내아이들이 놀고 있는 백동자도(百童子圖), 등용문을 나타내는 약리도, 당의 명장 곽자익의 고사를 소재로 한 관분양행락도 등 남아선호사상과 자식의 출세에 대한 바람을 담아낸 작품이 소개된다.

'이미지 속에 담긴 교훈'에서는 사대부의 문인적 취향이 대중화, 생활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 문자도와 책거리, 그리고 귀감이 되는 효제충신의 인물과 인기소설의 명장면 등이 담긴 고사인물도가 전시되며, '이상과 현실의 자연'에서는 자유로운 조형으로 기존의 산수화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주요 소재였던 금강산도, 관동팔경도가 선보인다. '장수에 대한 염원'에서는 동박사, 수성노인 등 도교적 인물과 십장생을 주제로 장수의 소망을 표현한 십장생도, 요지연도, 수성노인도 등이 전시되며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그림인 '액막이'에서는 우리와 친숙한 까치호랑이, 매, 닭 등의

동물그림과 호렵도(虎獵圖) 등이 소개된다.

또 북한박물관에서는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특별기획전 '또 하나의 도구, 骨角器'전을 개최하고 있다.

11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뼈와 뿔로 된 도구인 골각기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전시로, 국내 22개 박물관 및 연구기관에서 발굴 조사한 선사, 고대 유적에서 출토된 골각기 38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골각기는 뼈바늘, 천 짜는 도구, 골무, 송곳, 칼, 장신구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구들로, 선사, 고대의 주요 생업도구 중 하나였으나 석기나 토기, 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소재인 골각기의 종류와 그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특별한 전시이다.

부산근대역사관에서는 특별기획전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전이 열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근대관광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광문화와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관광을 시작하다', '이런관광, 저런관광 - 관광을 즐기다', '관광의 기억을 사다'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안내책자, 사진 등 1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호렵도



호도도

■문의/부산박물관(624-6343~4)

오 페 라(3)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러시아 오페라의 대부 글린카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오페라는 한때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 독일의 바그너, 이탈리아의 베르디에 견줄만한 뛰어난 작곡가를 그들은 갖지 못했다. 그러한 부진에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 작곡가가 비제였다. 그는 <카르멘>을 통해서 프랑스 오페라를 재건했고 나아가 프랑스 국민오페라의 전통을 확고하게 세웠다. 비록 번호주의를 따르기는 했으나 극적 분위기와 음악의 융합에 성공함으로써 바그너나 베르디에 못지않은 위업을 달성시켰다.

19세기 중엽부터는 러시아에도 뛰어난 오페라 작곡가가 등장하는데 그 첫 인물은 러시아 오페라의 대부로 추앙되는 글린카이다. 그는 심포니한 전개에 레치타티보, 아리오소, 합창을 교묘하게 안배시키는 기법을 확립시켜 러시아 오페라의 전형을 완성시켰다. <황제에게 바친 목숨> <투슬란과 루드밀라>가 바로 그러한 작품들이다. 글린카가 세운 전통은 차이코프스키, 보로딘, 무소르그스키, 립스키 코르사코프 등에 계승되어 과거 이탈리아로부터의 음악적 지배에서 완벽한 자존을 성취하게 된다.

19세기 말엽이 되자 이탈리아 오페라에 또 다시 새로운 경향이 등장한다. 사실주의가 그것이다. 그 이전의 오페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이었다. 그러나 사실주의는 실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치중함으로써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이후 오페라의 경향은 거의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실주의의 시원은 이탈리아의 재주꾼 마스카니(1863~1945)의 화제작 <카바렐리아 루스티카냐>에서 찾아진다. 1888년, 손초노출판사의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이 오페라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단숨에 청중의 갈채를 받았고, 2년 뒤엔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라는 또 하나의 사실주의 오페라를 탄생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푸치니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어 <나비부인> <라 보엠> <토스카> 같은 보석들을 만들게 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작곡가 볼프 페라리는 사실주의적 오페라인 <성모의 보석>을 쓰기도 했으나, 오페라 부파를 근대적 스타일로 부활시키는데 힘써 오페라 경향의 다변화에 기여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스트라우스가 왕성하게 오페라를 발표하게 되는데 바그너보다도 훨씬 관능적, 감정적, 동적인 경향의 작품을 썼다. <살로메>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현대 오페라의 새로운 이데아는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에 기원한다. 그는 희곡에 음악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관객으로 하여금 마음껏 상상의 여유를 갖게 하는 상징주의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이러한 정신은 라벨의 <스페인인 때>, 뒤카스의 <아리안느와 파란 수염>에 계승된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선 낭만주의 오페라 경향이 등장하여 현대적 상황 설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알반 베르크가 1925년에 발표한 <보체크>가 효시가 된다. 무조주의와 표현주의에 의해서 작곡된 보체크는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현대 오페라로 자리 굳힘을 끝냈다. 힌데미트의 <화가 마티스> 역시 낭만주의의 산물일 것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제 57회 정기공연 환-순환의 고리, 몸-

11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은 오는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우주의 순환과 상생을 웅장한 북소리에 담아낸 창작무용 '환-순환의 고리, 몸-'으로 제 57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정중동(靜中動)'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우리 춤사위와 천공을 울리는 듯한 박진감 넘치는 타악 소리로 우리 민족이 갖는 끈끈한 생명의 흐름을 끊어지지 않는 '환(還)'으로 표현한 이번 무대는 '백두대간' '천지인'에 이어 흥기태 안무자가 새롭게 선보이는 북춤의 결정판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 백두처럼 솟았다가 폭포처럼 떨어지고 대하(大河)처럼 당당히 흐르는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한 춤사위와 북가락으로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구성과 안무를 맡은 흥기태 안무자는 "4막에 이르는 춤의 여로는 하나의 결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 모두는 순환의 고리가 되는 생명의 보금자리, 즉 몸으로 표현된다"며 "우리 춤과 몸짓의 원류를 향한 열정을 환(環)이라는 순환의 고리에 담아내어 열정적인 춤판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4막으로 구성된 이번 작품은 1막 '마고(麻姑)'에서 생명탄생의 시원이자 천지만물의 성모인 '마고의 춤'을 통해 신령한 기운으로 천지만물의 조화를 일으키며, 2막 '지기(至氣)'에서는 지극한 기운으로 인간의 원초적 직관과 오감에서 나오는 신명을 춤사위로 표현한다. 3막 '결결(缺缺)'에서는 이지러진 인간내면의 도덕적 황폐와 욕망 결결이 주름진 번뇌를 훈령무, 장검무, 검무, 북놀이 등을 통해 표현하며, 4막 '여여(如如)'에서는 원시 시원의 뿌리를 찾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채상모놀리와 허튼북춤, 부포춤, 모듬북 공연으로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국제예술문화원 이사장으로 있는 원로무용가 배혜경선생이 1막 '마고'에서 '마고'역을 맡아 특별출연하며, 4막 '여여'에서 채상모놀리는 남산놀이마당이 맡아 신명나는 한판을 펼친다.

- 안무 및 구성/흥기태(예술감독겸 수석안무가)
- 훈련 지도/이운혜
- 대본, 연출/황해순
- 특별출연/배혜경, 남산놀이마당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겸 수석안무자 흥기태



배혜경



남산놀이마당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 하는 존 레빗의 'Missa Festiva'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객원 지휘자 전상철

부산콘서트콰이어 상임지휘자인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마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애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소프라노 송린, 부산콘서트콰이어가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존 레빗의 'Missa Festiva' 과 동요 '사계', 한국가곡과 민요 등을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애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전상철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경성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 아카데미 로마나 텔레 아르티에서 합창지휘와 어린이합창지휘, 극장예술경영 디플롬을 취득했다. 조이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부산학원연합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한 전상철은 현재 한국합창조직위원회 예술위원, 부산합창연합회 사무국장, 부산음악협회 합창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 곡으로 선보이는 존 레빗의 'Missa Festiva'은 미국의 현대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존 레빗(1956~)이 1988년 작곡한 곡으로, Kyrie, Gloria, Credo, Festival Sanctus, Agnus Dei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정적인 멜로디와 대위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합창, 화려한 피아노 반주가 일품인 작품이다.

이어서는 헝가리 민속무곡 '차르다쉬' 스타일로 쓰여져 애수 편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인상적인 라벨의 치간느를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애의 특별연주로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애는 한양대학교와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벨기에 방송교향악단 단원, 서울심포니, 용인교향악단 악장,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밖에도 이현철 곡 '동요 사계'와 박지훈 곡 '도라지꽃', 박정규 곡 '날 좀 보소', 김희조 곡 '농부가'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송린이 극중 솔로로 무대에서 오랜만에 후배들과 정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또 특별출연으로 무대에 서는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돈 베직 곡 '날개를 가지고', 토셀리 곡 '세레나데', 안현순 편곡 'CM송' 등을 들려준다.

■ 입장료 : 균일 2,000원

■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5회 정기연주회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하피스트 김영립, 피아니스트 에스더 박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섬세한 음색을 지닌 하프에 각별한 애정을 지녔던 드뷔시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성한 무곡과 세속적 무곡 작품 103'을 시작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완성도로 메시앙 초기 작품 중 최고로 꼽히는 4개의 교향적 명상곡 '승천'과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협주곡 제 1번 내림라장조 작품 10,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제 1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하프수석 김영립의 협연으로 들려줄 드뷔시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성한 무곡과 세속적 무곡 작품 103'은 회고적이고 아담한 울림으로 가득한 곡으로 느리고 신비한 제 1곡 '신성한 무곡'과 활기찬 리듬과 화려한 아르페지오를 수반한 제 2곡 '세속적 무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연자 김영립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가부이자와 뮤직캠프, Susann McDonald 마스터클래스, 러시아 글린카음악원 연수에 참가했으며,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클라리넷앙상블, 창원실내악단, 김해신포니에타와의 협연, 플루트&하프 앙상블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에스더 박이 들려줄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협주곡 제 1번 내림라장조 작품 10은 프로코피에프 자신이 자서전을 통해 '악상과 표현, 모두가 성숙해진 나의 첫 작품'이라고 밝힌 초기대표작 중 하나이다.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에스더 박은 1995년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한 후 요헤베드 카플린스키를 사사하여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줄리아드음대 재학 중 2004년 지나 박하우어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에스더 박은 제 3회 중국 상하이 국제 피아노콩쿠르, 제 6회 파테레프스키 국제 피아노콩쿠르, 내셔널 쇼팽 콩쿠르, 제 14회 뉴올리언스 국제 피아노콩쿠르 등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클린턴 대통령 영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지막 곡인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제 1번'은 작곡자 레프 아토프미안이 쇼스타코비치의 발레곡 '맑은 시냇물'에서 대부분 발췌한 모음곡으로, 해학적 감흥이 가득한 가볍고 경쾌한 5곡과 느린 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부산시립교향악단 하프수석 김영립



피아니스트 에스더 박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과 함께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악장 김동욱



첼로 수석 양욱진



오보에 부수석 류재환



바순 수석 윤태준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 시대까지 교향곡이 완성단계에 이르는 시대적 작곡형태의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과 함께 바로크에서 고전으로...'가 오는 11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악장 김동욱, 첼로 수석 양욱진, 오보에 부수석 류재환, 바순 수석 윤태준 등 각 파트별 리더들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헨델의 '오보에 협주곡 제 2번 내림나장조 작품 302a', 하이든의 '협주 교향곡 내림나장조 작품 84', 베토벤의 '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36'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바로크 후기에 유행했던 콘체르토 그로소(합주 협주곡) 형식에서 조금 더 발전한 고전 초기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협주 교향곡), 그리고 본격적인 고전 시대에 무르익은 심포니(교향곡)까지 1,700년대 초반에서 1,800년대 초반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곡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오케스트라 편성을 보는 재미도 더해준다.

첫 곡인 헨델의 '오보에 협주곡 제 2번 내림나장조 작품 302a'는 합주 협주곡 제 9번으로 널리 알려진 곡으로, 오보에 협주곡이라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오케스트라와의 조화를 잃지 않는 작품이다.

하이든의 '협주교향곡 내림나장조 작품 84'은 그가 30년간 봉직했던 악장직에서 물러나 1792년 처음으로 방문했던 영국 런던에서 작곡한 곡으로, 당시 영국 방문과 작곡을 권유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요한 페터 잘로몬과의 약속으로 탄생된 곡이다. 초연은 그해 3월 제 4회 잘로몬 콘서트에서 하이든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잘로몬(바이올린), 메넬(첼로), 해링턴(오보에), 흄즈(바순)의 독주로 열렸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동욱, 양욱진, 류재환, 윤태준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마지막 곡인 베토벤의 '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36'은 베토벤이 청각장애로 정양(靜養)중이던 하일리겐슈타인에서 완성한 곡이다. 당시 유서를 쓸 정도로 절망적인 가운데 쓰여졌지만,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당시 백작의 딸인 줄리에타를 사랑했던 베토벤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803년 초연 후 라이프치히의 '알게마이네 음악신문'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이 교향곡이야말로 정열가의 작품이며, 이 시대의 모든 유행작품이 이 세상에서 지취를 감추는 시대가 되어도 이 작품만은 살아남을 것이다'는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앙상블로 듣는 예술가곡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7년 한 해 동안 과거와 현대의 장르를 아우르는 아카펠라음악회, 7080가요합창 그리고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한 팝 합창 음악회 등의 다양한 특별연주회로 청중들에게 합창의 묘미와 기쁨을 선사한 부산시립합창단이 11월 22일 '예술가곡'이라는 기본 타이틀을 주제로 특별연주회 무대를 갖는다.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김강규지휘자의 지휘와 해설로 마련될 이번 무대는 2007년에 갖는 마지막 특별연주회 무대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줄 '예술가곡(Art Song)'은 일반적으로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성악곡들로서 질 높은 문학적인 시에 음악이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성악곡을 말한다. 이것은 시에 단순한 가락을 붙여서 부르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성악음악이 반주가 노래에 딸려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예술가곡은 시와 노래와 반주가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서양음악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중고등학교의 음악교과서에는 유럽과 미국의 예술가곡들이 많이 수록되어서 이러한 곡들은 우리의 귀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는 원래 독창으로 작곡되어진 예술가곡들을 여러 성부가 있는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부산시립합창단원들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두 세곡씩 연주를 하게 된다. 연주되는 곡은 지금까지 유럽과 세계의 음악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가곡 중 우리 귀에 익숙한 예술가곡들을 선곡했다.

첫 무대인 전반부는 이탈리아의 가곡들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애창하는 '이상(Ideale, F.P.Tosti 1846-1916)', '아베 마리아(Ave Maria, L.Luzzi 1828-1876)', '기도(Pregghiera, F.P.Tosti)' 등의 곡들이 연주되며, 연주회의 후반부는 독일 예술가곡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프란츠 슈베르트(F.Schubert 1797-1828)의 예술가곡들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곡들을 들려준다.

무대의 마지막은 시립합창단 전 단원들이 합창으로 슈베르트의 '마왕(Elkoenig)'을 연주하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청중들과 예술가곡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김강규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2007 부산국제합창제

10월 31일-11월 3일



10월 31일 세계 각국 300여명의 연합합창단이 펼치는 '코리아판타지 인 부산'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1일(목)~11월 3일(토) 까지 3일간 4개 종목으로 나누어서 경연을 펼친다.

주요일정

- 개막공연 10월 31일(수) 오후 7:30
- 만남의 콘서트 1일(목)~3일(토) 다중집합지 오후 2:00~7:00
- 갈라콘서트-대극장 1일(목)~2일(금) 오후 7:30
- 합창경연-중극장 1일(목) 오전 10:00~오후 8:00 클래식 혼성 경연 2일(금) 오전 10:00~오후 8:00 클래식 동성(남성, 여성) 경연, 대중음악(재즈, 현대음악 포함) 3일(토) 오전 10:00~오후 5:00 민속음악 경연
- 시상식, 수상자공연 3일(토) 오후 7:30 대극장
- 제 4차 아·태합창 지도자대회 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 합창워크숍 1일(목)~3일(토) 오전 10:00~18:00 소극장 · 강사/Jonathan M. Velasco(필리핀) Ana Maria Raga(베네주엘라) Stan Engebretson(미국) · 주제 /여성합창, 혼성합창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부산시립무용단 제 57회 정기공연
환-순환의 고리, 몸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한국인의 숨결과 고동소리를 고요한 춤사위와 박진감 넘치는 타악의 기백으로 살려낸 부산시립무용단 제 57회 정기공연 창작무용 '환-순환의 고리, 몸'.

백두대간, 천지인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웅장하고 역동적인 북춤의 결정판인 '환-순환의 고리, 몸'은 고요한 중에 움직이며,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고요한 삶의 흐름을 한국 춤의 맺고, 풀고, 어르는 춤사위로 형상화했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

- 훈련지도/이유혜(훈련지도자)
- 대본, 연출/황해순
- 객원출연/배혜경, 남산놀이마당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하는
존레빗의 Missa Festiva
10일 토요일 오후 5:00



전상철

김명애

부산콘서트콤파이어 상임지휘자, 부산음악학원연합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상철이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사랑 I / 존 레빗 'Missa Festiva'
- 사랑 II / 이현철 곡 '동요 사계' - 봄, 여름, 가을, 겨울
- 사랑 III / 한국가곡과 민요 '도라지꽃(박지훈 곡)' '날 좀 보소(박정규 곡)' '농부개김

희조 곡' 등 수곡

- 지휘/전상철(객원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김영애(바이올린, 마산시립교향악단 악장), 부산콘서트콤파이어, 송린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11일 일요일 오후 5:00



우리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민 부산연주회, 1996년 9월 제 2회 국제 영 쇼팽 콩쿠르 1위를 차지

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임동민은 1998년 제 11회 국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심사위원 특별상, 2000년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쿠르 1위없는 3위, 2001년 부조니 콩쿠르 3위, 2002년 국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5위, 2004년 프라하 국제 음악 콩쿠르 2위를 수상하는 등 일찌감치 세계적인 연주자 반열에 올랐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31번

베토벤/소나타제 23번 '열정'

리스트/소나타 h-moll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
12월 월요일, 19일-20일 월-화요일, 12월 5일-6일 수-목요일,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차세대 거장을 꿈꾸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대학교향악축제.

12일 동의대학교 연주를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가한다.

■ 11월 12일(월) 동덕대학교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KV. 136

변훈/떠나가는 배

브람스/바이올린 협주곡 등 수곡

· 지휘/윤상운

· 협연/테너 문정재, 정이아, 이윤란

■ 11월 19일(월) 부산대학교

프로그램

송철욱/오케스트라를 위한 '베리아'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내림나

단조 작품 23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협연/최영민

■ 11월 20일(월) 동아대학교

프로그램

민요/박연복

김동진/신아리랑

사라사테/지고이네르바이젠 등 수곡

· 지휘/박종휘

· 협연/신대현, 이정운, 오보람

■ 12월 5일(수) 신라대학교

프로그램

멘델스존/서곡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이수인/내 맘의 강물

베토벤/피아노와 코러스,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조준제(성악), 객수현(피아노), 김가현

(플룻), 오주현(플룻)

■ 12월 6일(목) 경성대학교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민동산, 전람회의 그림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등 수곡

· 지휘/이기균

· 협연/박종준(성악), 강은태(성악), 한상훈
(트럼펫)

■ 12월 12일(수) 고신대학교

프로그램

로시니/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베버/협주곡 제 2번 작품 74

베토벤/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36 등

· 지휘/오충근

· 협연/박애녹(클라리넷), 김성경(피아노)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광역시 음악협회(634-1295)

(재)세원장학문화재단이 마련하는 문
화의 밤

제 4회 2007 세원음악회

-명인 3색 어울림-

15일 목요일 오후 7:30



임웅균

김영림

최성수

세원장학문화재단이 공연예술 활성화와
문화향수 기회증진을 위해 마련하는 세원음
악회 네 번째 무대.

정상급의 성악가와 국악인, 대중음악인을
초청하여 3색 음악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음
악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경기병서곡, 고향의노래, Yesterday, 태평

가, 정선아리랑, 해후, 풀잎사랑, 표정, 떠나

는 마음, 박연복, 축배의 노래 등 수곡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최선용)

· 출연/테너 임웅균, 소프라노 이지은, 국악
인 김영림, 대중가수 최성수

입장료 초대(초대권소지자에 한함)

문의 미래와음악(242-5231)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5회 정기연주회

16일 금요일 오후 7:30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2007
년 하반기 연주 첫 지휘봉을 잡는 이번 무
대는 1부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2부에서는
러시아 작곡가 곡을 선곡, 장중함과 화려함
의 대비로 가을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드뷔시/신성한 무곡과 세속적 무곡 작품
103

메시앙/4개의 교향적 명상곡 '승천'

프로코피예프/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내림라
장조 작품 10

쇼스타코비치/발레 모음곡 제 1번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하프/김영림(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피아노/에스터 박 · 해설/객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김희은 현대무용단
2007 김희은의 춤 '전학'

17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대학 실용무용과 교수, 가이아덴
스کم퍼니 예술감독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펼치고 있는 김희은 교수의 2007년 무대 '선택'.

오늘날 자신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우리들의 무수한 선택들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춤 언어로 표현한 작품 '선택'과 죽음을 관조하며 또 다른 진실한 삶의 모습을 담은 'Beyond The Death'를 선보인다.

작품

1부 '선택'

-깃털 같은 가벼움과 태산 같은 무게-

2부 'Beyond The Death'

· 안무, 연출/김희은(부산예술대학 교수)

· 영상감독/김상화(부산예술대학 교수)

· 분장/유은희(부산예술대학 교수)

출연

윤석태, 이보라미, 이주연, 이성희, 천권준, 최준호, 박혜련, 류동현, 선정찬, 최우석, 서득교, 이웅진, 박상희, 박수일, 배민우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예술대학(627-7992)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의 창립 10주년 기념

우크라이나교향악단 초청대 음악회

18일 일요일 오후 4:00, 7:30



폴란드 첸스트호 바 필하모니,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에 필하모니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근과 함께 하는 우크라이나교향악단 초청 대음악회.

■ 오후 4:00 부산오페라 소사이어티 창단 축하갈라콘서트 '우리 가곡의 향연'

기존의 오페라 장르에서 벗어난 순수 창작오페라와 뮤지컬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줄

거울을 선사할 부산오페라소사이어티 창단을 기념하는 갈라콘서트.

이번 무대는 글린카 오페라 '루스란과 루드밀라'를 비롯 이태리, 독일,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김영근
- 출연/테너 박찬, 소프라노 박은미, 바리톤 하병욱, 소프라노 박미경, 메조소프라노 차순례, 테너 강학운
- 특별출연/플루트 김정선, 첼로 노선희, 더블베이스 김창호

입장료 VIP 70,000원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10,000원

■ 오후 7:30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에 필하모니 내한공연



자포로지에 오케스트라 객원지휘자 겸 객원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권상무 편곡으로 우리 가곡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

김성태/동심초

김동진/저 구름 흘러가는 곳

러시아만요/호롱불 등 수곡

· 음악감독/김영근

· 객원지휘 겸 객원피아니스트/권상무

출연

허동권(테너), 이성준(대금), 고예정(소프라노), 이승우(바리톤), 정필운(테너), 강연희(메조소프라노), 김정원(한국무용), 이화영(비올라)

· 특별출연/부산여자대학 음악학과 합창단

입장료 R석 20,000원 · 일반 10,000원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의회(622-3336)

2007 김복선 발레공연

21일 수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교수, 동아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복선 교수의 2007년 무대.

김복선 교수는 대한민국무용제 대상, 연기상, 서울무용제 안무상, 연기상, 부산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연출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Deep Blue, 무르의 길

· 안무 및 예술 총감독/김복선

출연

황재원, 정영수, 김연희, 신세정, 표혜원, 조혜진, 박미화, 고혜란 외 20명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2,000원(부산 사랑티켓 참가자)

문의 신세정(010-2028-9907)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과 함께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22일 목요일 오후 7:30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이동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 첼로 수석 양욱진, 오보에 부수석 류재환, 바순 수석 윤태준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협연자로 바로크에서 고전에 이르는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헨델/오보에 협주곡 제2번 내림나장조 작품 302a

하이든/협주 교향곡 내림나장조 작품84

베토벤/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36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수석지휘자)

· 협연/김동욱(바이올린, 악장), 양욱진(첼로, 수석), 류재환(오보에, 부수석), 윤태준(바순, 수석)

※콘서트 따라잡기-해설/이동신(부지휘자)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그랜드오페라단 금난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여행 II '라 트라비아타'

24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오페라가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작품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함께 오

페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금난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 여행 두 번째 무대.

오케스트라가 라트라비아타의 주요곡을 연주하는 사이사이에 극중 배역을 맡은 성악가들이 실제연기를 곁들이며 라트라비아타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축배의 노래, 아! 그이인가, 불타는 가슴을, 친애하는 바레리씨, 아! 그분에게 전해주오, 프로벤자 내고향으로 등 수곡

· 지휘/금난새

· 오케스트라/뉴프라이임 오케스트라

출연

서할란, 나승서, 김동원, 성정하, 전병호, 이창룡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

원 · S석 50,000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가족석 R석(4인) 190,000원 · 가족

석 S석(4인) 140,000원

문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수능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6일 월요일 오후 7:30



오페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부산오페라연구소의 2007 부산 오페라 갈라콘서트 시리즈 3번째 무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이 오페라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오페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주요한 장면을 끊어 오페라 전체를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출연

이윤정, 김하나, 박연경(이상 소프라노), 송승민 전병호 (이상 테너), 김종화, 이종훈(이상 바리톤), 장재석(베이스)

· 제작총감독/임재우

· 예술감독/윤상운 · 음악코치/홍지혜

입장료 균일 20,000원(수능생 및 청소년 50% 할인)

문의 부산오페라연구소

(747-1567, 010-3038-7191)

예음회 창단 10주년 기념 폴란드의 마에스트로 '마렉 드레브노프스키' 초청 피아노 협주곡의 밤

27일 화요일 오후 7:30

1997년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강해경 교수의 제자 10여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창단한 예음회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들려주는 특별무대.

이번 무대는 폴란드 로츠국립음악원 교수인 마렉 드레브노프스키 지휘로 피아노 협연의 밤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마장조

플랑/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라단조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

네이즈 내림마장조 작품 22 등

· 지휘/마렉 드레브노프스키

· 오케스트라/뉴프라이임오케스트라

연주

강해경(신라대학교 음악과 교수), 김경출, 김명선, 정안선, 박은진, 김은아, 이임정, 박해란, 방정애, 한예정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테너 김진원 고희기념 작사 작곡 독창회

28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오페라 단원, 세종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음악사랑 운동본부 이사장, 세계민요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진원선생의 고희기념 작사 작곡 독창회.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정정문 아지탈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공연에 매처
병도원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3월까지의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김진원의 가곡집 '날 위해 노래 불러주오' 수록곡들을 선곡,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피아노/권애진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문의 클래식 아트메니저(621-6646)
쓰리세븐코리아 엔터테인먼트
(02-2277-6516)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6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9일 목요일 오후 7:30

차세대 유망주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이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파가니니/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 중 3악장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중 1악장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작품 104 중 1악장
리스트/죽음의 무곡 작품 126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박소망(바이올린, 부산예고 2년), 한주연(바이올린, 부산예고 3년), 홍승아(첼로, 부산예고 3년), 최지예(첼로, 부산대 2년), 채세중(피아노, 부산예고 1년), 박진영(피아노, 부산예고 2년)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중극장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1회 정기연주회
-슬라브, 그 우수와 격정
4일 일요일 오후 7:30

지난해 확대 개편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31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시벨리우스/핀란드어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 지휘/장진

· 협연/조예림, 이수민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정금희(010-2565-8724)

부산원로음악가회
제 2회 원로음악회
5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의 음악을 지켜온 원로 음악가 17명으로 결성된 부산원로음악가회(회장/박형태)가 들려주는 제 2회 정기연주회.

부산목관 5중주, 작곡가 최인식, 송계근, 지휘자 박근기 등 삶과 음악을 아름답게 가꾸어온 부산원로음악가회 회원들이 선, 후배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단치/5중주 내림 나장조
최인식/전자 음향과 피아노를 위한
'Concerto'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출연

김태운(바순), 최인식(작곡), 차성실(소프라노), 송계근(작곡), 홍승신(오카리나), 장민수(플룻), 조현미(바이올린), 부산코러스합창단(지휘/박근기)

입장료 무료

문의 전이동(011-835-0368)

향사회 제 42회 정기작곡발표회
합창음악의 밤
6일 화요일 오후 7:30

1974년 부산, 경남의 작곡가들로 결성된 향사회의 제 42회 정기작곡발표회로 향사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경남대학교 박재수교수의 곡 '무서운 시간(윤동주 詩)'을 비롯 10곡의 합창곡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황장수/무반주 혼성합창을 위한 '신록'
김수진/무반주 혼성합창을 위한 '팔복'
김종욱/윤혜 등 수곡
· 합창/김해시립합창단(지휘/이영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정승원(011-554-1657)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24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7일-9일 수-금요일 오후 7:30

부산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가을 무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1996년 이후 매년 두 차례 씩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 제 1일 7일(수)-현대 작곡가의 밤
프로그램

히나마스테라/Danzas Argentinas Op.2
G. Bacewicz// Sonata(1953)

조영윤 /피아노를 위한 상념

· 연주/윤혜정, 양광기, 정년경

▣ 제 2일 8일(목)-노은경 피아노 독주회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가단조 BWV. 894
베토벤/소나타 가장조 작품110 등

▣ 제 3일 9일(금)-Piano Grand Festival
롯데시/세미라미데 서곡

드볼작/슬라브 춤곡 중 No.1&3

롯데시/윌리엄텔 서곡 등 수곡

· 연주/김유진, 김윤정, 김은주, 김은희, 김정숙, 박윤영, 이성은, 이수연, 이아영, 이태희, 조혜영, 최민경, 조영문, 차미소란, 강영만, 박정현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소영(011-9336-1679)

김수진 작곡발표회
10일 토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을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러시아 Khabarovsk State Institute of Art and Culture, 러시아 Far Eastern

State Academy of the Fine Arts에서 작곡 수업을 한 작곡가 김수진의 작곡발표회.

연주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 이장호(바이올린), 장정호(바순), 황남용(클라리넷), 홍희철(거문고) 외

입장료 초대

문의 김수진(017-550-1299)

제 13회 부산전자음악협회 정기공연
2007 부산국제 디지털 미디어 음악축제

11일 일요일 오후 7:30

아날로그적인 자연의 소리에 인공적인 디지털 전자 음향을 결합해 한국적인 음악을 창조하고 있는 부산전자음악협회 정기공연.

부산전자음악협회 회원들과 일본 Fujioka Sadam, 독일 Joahim Heintz, Ali Gorjji 등 해외작곡가 등 13명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박철홍/꽃#3

Fujioka Sadam/Code

최인식/지구의 노래 등 수록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전자음악협회(011-873-7983)

**한국가곡연구회 제 11회 정기연주회
정오에 듣는 한국가곡의 향연**

12일 월요일 정오 12:00

우리의 정서를 담은 아름다운 한국가곡을 연구하고 보급해온 한국가곡연구회가 들려주는 한국가곡의 향연. 우리 귀에 익은 애창가곡들을 낯 시간 색다른 느낌으로 연주한다.

프로그램

우덕상/그대 눈 속의 바다

나운영/아 가을인가

박판길/산노을 등 수록

출연

바리톤 정성민, 테너 김화정, 소프라노 정서영, 바리톤 심정보, 소프라노 성정하,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베이스 김태경, 테너 이흥득, 바리톤 우기선, 소프라노 김현숙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동윤(011-875-3502)

**작곡 동인 잉태
제 6회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

12일 월요일 오후 7:30

고교 동창으로, 작곡가로 음악과 인생을 즐겨온 작곡가 권오철, 백승태, 송필석, 최석태가 들려주는 '세남자의 합창이야기'.



프로그램

권오철/누가 나를,

그대 떠나고

백승태/세상은 마음

그림자

송필석/내가 누구

를 두려워 하리오

최석태/섬초롱, 여

호와는 나의 목자 등 수록

· 연주/테너 한남식, 소프라노 변향숙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사랑티켓 적용)

문의 최석태(607-6127, 019-623-1547)

금찬이 피아노 피사이드

15일 목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와 동

대학원, 독일 뒤셀

도르프 국립음대,

네델란드 마스트리

히트 국립음대를 졸

업한 피아니스트

금찬이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론도 작품 51

베토벤/소나타 작품 110

쇼팽/판타지아 등 수록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크레아(442-1941)

**프랑스 디오티마 4중주단
초청공연**

16일 금요일 오후 7:30

파리와 리옹고등국립음악원 출신 수상자들
로 구성된 디오티마 사중주단 부산연주회.



디오티마 사중주

단은 1998년 베를

린 칼 클링글러 콩

쿠르 3위, 1999년

파리에서 열린

FNAPEC 콩쿠르 1

위, 2000년 런던

국제 콩쿠르 현대

음악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하이든/현악 4중주 작품 74 제 4번

아나체/사중주 2번 '은밀한 편지'

드뷔시/현악사중주곡 등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부산문화(635-908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작곡가 박봉렬의 부산사랑 동요사랑
세계는 우리와 함께**

17일 토요일 오후 5:00



배정형



박봉렬

어린이의 꿈과 사랑을 전해주는 동요작곡가 박봉렬 선생의 부산사랑 동요사랑을 담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박봉렬선생은 한국아동음악상 장려상 수상(7회), 한국아동음악상 본상 수상(20회), 동요사랑회 작곡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추억 I /오룩도(이국재 작사), 오페렛타 '신비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돈가스 ₩6,000원(디저트 포함)

★3단샌드위치+원두커피 ₩6,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스런 꿈나라' 중에서 '하늘나라 어머니가', 고운 꿈(김재원 작사) 등 추억 II/민들레(정진채 작사), 어머니(주강식 시), 할머니 생각(유경환 작사) 등

- 지휘/배정행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소프라노 황혜진, 테너 허동권
- 객원피아노/차민영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녀소녀합창단(607-6131)

부산원음합창단 제 12회 정기 연주회

18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합창올림픽 금메달, 브레멘 합창올림픽 은메달, 중국 합창올림픽 동메달을 수상한 부산원음합창단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정선아리랑, 노래 부르세 새 세상, 님, 한강수 타령, 개구리 등 수곡
 · 지휘/정세운 · 반주/김미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안심원(016-588-5927)

부산 여성문화회관 미루샘 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20일 화요일 오후 7:30



1993년 창단된 부산여성문화회관의 순수 아마추어 어머니합창단인 미루샘합창단이 들려주는 제 12회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윤지영/봄이 오면
 최병철/아지랑이
 박철홍/두견화
 · 지휘/고봉수 · 반주/임시진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여성문화회관(320-8341~4)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21일 수요일 오후 7:30

매년 독주회를 열고 있는 학구파 신라대학교 조현미 교수의 바이올린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조현미 교수는 부산관현악단과 을숙도 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아르스 콰르텟 리더로 활동

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소나타 7번 다단조 작품 30
 파가니니/소나타 콘체르티타 1번 작품 1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3번 라단조 작품 108 등 수곡

· 특별출연/조현선(피아노, 경성대학교 교수), 고충진(클래식기타)

입장료 초대
문의 조현미(011-9551-0959)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앙상블로 듣는 예술가곡

22일 목요일 오후 7:30



10월 가을의 서정을 담은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무대를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이 11월에는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가곡을 선곡, 아름다운 예술가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이 4개 파트의 앙상블을 구성, 4색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이탈리아가곡/이상, 아베마리아, 기도, 오, 내 사랑, 오, 나의 사랑하는 님, 아름다운 그대 모습 등
 독일가곡/야상곡, 보리수, 송어, 그대를 사랑해, 아델라이데 등 수곡

· 해설, 지휘/김강규
 · 반주/이승운, 이경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한얼정악연구소 제 12회 정기공연 시조창무극 우리 얼 우리가락을 찾아서 '동짓달 지나긴 밤을...'

-시조를 통한 황진이의 삶 엿보기-
 23일 금요일 오후 7:30



시조의 대중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한얼정악연구소의 시조창무극 열두번 째 무대.

올해는 조선의 최고 명기 황진이가 남긴 시조를 통해 시인이며 시조명창 황진이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출연
 정인경, 박수진, 박향연, 박순이, 이호호, 홍순원, 강신영, 신중국, 최규환, 이희재 외

· 특별출연/교사시조연구회, 춤소리에술단, 국악협회 김경애 외 남사당패 5명, 예원가야금연주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한얼정악연구소(011-870-8597)

한국바로크앙상블 제 14회 정기연주회

24일 토요일 오후 7:30



서양음악의 뿌리를 찾아 바로크 시대 악기와 의상으로 연주하는 한국바로크앙상블이 들려주는 제 14회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미국 등에서 바로크 음악수업을 한 첫 바로크 음악 전공자인 바로크 첼로 연주자 이현정과 바로크 소프라노 이선영이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코렐리/바이올린, 플룻, 비올라 디감바 트리 오 소나타
 바발디/바로크 첼로 솔로 소나타 사장조 등

출연

이현정, 김대수(바로크첼로), 이선영(바로크 소프라노), 김용문, 김지세, 김성현, 최민영(바로크 바이올린), 전영규(바로크 비올라), 정경미(플룻), 조진희(리코더), 정명숙(비올라 디감바), 정안선(첼발로)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구일(011-864-0291)

부산사랑여성모임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예술한마당

25일 일요일 오후 6:00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들에게 현실적 사회적응 교육 및 생활지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해온 부산사랑여성모임이 마련하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예술한마당'.

· 특별출연/테너 장원상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사랑여성모임(809-7287)

노엘합창단 제 48회 정기연주회

26일 월요일 오후 7:30



올해로 창단 47주년을 맞은 노엘합창단이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 수석지휘자의 객원지휘로 부산출신의 작곡가 백현주, 하순봉 위촉곡과 한국성가, 현대성가, 리듬이 있는 합창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백현주/하늘(위촉곡)

하순봉/가을의 시(위촉곡)

한국성가/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시여 예전에 부르던 노래/언덕위의 집(미국), 할 아버지 시계(미국동요) 등 수곡

· 단장/변원단 · 지휘/김강규(객원지휘)

· 반주/윤민화 · 특별출연/변애영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윤진식(622-0224)

제 15회 소리테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고 옥영호님 추모 음악회-

27일 화요일 오후 7:30

플루트 음악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활동해온 소리테플루트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무대로 지난 3월 작고한 옥영호님의 추모무대로 연다.

출연

소리테 플루트 앙상블, 부산플루트 앙상블, 소노레 플루트 앙상블, 이창룡(바리톤, 동아대학교 교수)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이하룡(011-9535-0421)

제 5회 새물결 춤모음전

2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무용협회가 창작 열정 넘치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 매년 가을 펼쳐온 새물결 춤모음전.

작품

현대무용 '미친 봄날' (안무/김현정)

발레 '향기' (안무/김윤정 · 출연/김종오, 최혜령, 김숙진, 고지형)

현대무용 '헤니드' (안무/변지원 · 출연/변지원, 최우석, 이은주, 김종현)

한국무용 '진화(進化)' (안무/허경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2-5116)

소극장

동서씨어터 '코뿔소'

7일-9일 수-금요일 오후 7:30



2006년 11월 동서대학교 연극전공 4회 졸업생들로 결성된 동문극단 동서씨어터가 선보이는 '코뿔소'.

· 예술감독/박해란
· 연출/하명호

출연

박민철, 이동구, 유연진, 공희철, 권귀영, 조아라, 송혜리, 이은정, 하명호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의 동서씨어터(019-523-8702)

동요사랑회 제 14회 동요사랑큰잔치

15일 목요일 오후 6:00

동요를 사랑하고 동요를 널리 보급해온 동요사랑회가 들려주는 동요사랑 큰잔치.

제 7회 부산동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곡부분 한수성 선생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프로그램

신진수/꽃비내리는 사월, 고향집

김성덕/고향 가는 길, 등대

박봉렬/희망의 무지개, 보았니? 등 수곡

입장료 무료

문의 신진수(019-553-5675)

전국투어 이쿠로 후지와라 독주회-부산

22일 목요일 오후 8:00



유키 구라모토와 함께 일본 뉴에이지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작곡, 편곡에서부터 영화, 드라마의 음악프로듀서로 일본 피아니스트계의 주목을 받는 만능엔터테이너 이쿠로 후지와라 부산 연주회.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아트인부산(442-6500)

이세호 작곡발표회 II

25일 일요일 오후 5:00



무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해온 이세호의 작곡발표회. 그동안 작업한 연극, 무용, 영화음악을 해설, 퍼포먼스 등과 선보인다. 프로그램

작은 박나무에 부는 바람, 피아노 가단조, 마사를 위한 진혼곡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세호(011-561-4925)

- 음악
- 연극
- 무용
- 아동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늘원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남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극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깊어가는 가을밤의 기타 콘서트

1일 목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기타리스트 신성진, 박승용, 김윤중, 성혁준, 김경태, 이승기, 이윤정, 이우혁, 유형준이 깊어가는 가을밤의 서정을 들려줄 클래식 기타 콘서트.

· 찬조출연/신선영(피리), 임채형(장구), 조영아(가야금)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윤중(010-9492-4180)

제 18회 부산오르가노 정기연주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거제교회

고신대학교 손경순 교수를 비롯해 윤호정, 이정은, 이미영 등 4인의 오르가니스트가 들려주는 부산오르가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생상/교향곡 제 3번 다단조 작품 78
마스네/타이스 명상곡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윤호정(011-9334-1847)

한아름 바이올린 독주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부산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아름의 독주회.

프로그램

사라사테/서주와 타란텔라
드보르작/로망스 바단조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가을애'

2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차세대 연주자들이 함께 들려주는 협주곡의 밤.

- 지휘/백진현(신라대학교 교수)
- 피아노/차혜자, 이지은, 서민경, 오새별, 강민정, 김정희
- 바이올린/나리, 최윤정 · 첼로/윤성민

입장료 초대

문의 김정희(628-4206)

아지무스오페라단 초청 제 6회 아카데미 콘서트

3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배지혜

윤신협

전아름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는 음악 전공자들을 위해 아지무스오페라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 출연/배지혜, 김모경, 신성혜, 전아름, 윤신협, 심겨리, 전명현, 서영진, 전재연

입장료 초대

문의 손욱(011-9520-4649)

루마니아 플로리에스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4일 일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대극장



고전에서 현대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플로리에스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71년 독일투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명성을 쌓아왔다.

- 지휘/발렌티 도니
- 플루트 협연/박정민, 오주현, 조현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주)프로아트(02-585-2934~6)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영화 속의 뮤지컬

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5년 11월 신라대학교 성악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벨리씨미는 이탈리아로 '아름다운, 멋 있는'이란 뜻으로 그동안 친근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대중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뮤지컬과 영화 주제곡을 들려준다.

- 연출/김성경
- 출연/김채연, 박현정, 이윤순, 이은미, 방미애, 이지영, 홍경아, 장은영, 박수정(이상 소프라노), 성미진, 이지영(이상 메조소프라노)

- 피아노/서보현, 강봉현
- 특별출연/노래나라 중창단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은미(010-8277-4746)

제 15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L&F와 함께하는 비발디 사계와 로맨틱 OST

5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의 15번째 독주회.

현악앙상블 L&F와 함께 비발디의 '사계'와 영화, 드라마의 아름다운

주제곡을 들려준다.

- 첼로/김판수 · 피아노/이은정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임병원(620-4918, 011-953-4917)

제 1회 초등음악분과 연주발표회 교사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

6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동안 닦은 연주실력을 들려주는 초등음악분과 제 1회 연주 발표회.

- 출연/교사합창단(지휘/배승택), 한새리코더연구회, 교사오카리나앙상블, 김기환, 고은주(성악), 김은희(플루트)

입장료 초대

문의 박은숙(011-9532-5759)

페르티바 플루트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3년 창단된 이후 그동안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졌던 페르티바 플루트콰이어의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알비노니/아다지오

도플러/이중주 작품 36

모차르트/안탄테 다장조 KV. 315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성준(011-9503-2078)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6일 소프라노 방숙희 독창회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수원과대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방숙희의 살롱음악회.

■ 13일 피아노 트리오 콘서트

바이올린 박미정, 첼리스트 팍대희, 피아니스트 배미정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사장조 KV.564

라흐마니노프/Trio Elegique 사단조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라단조 작품 49

■ 20일 비르투오조앙상블 초청연주회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르투오조앙상블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4중주 제 14번 라단조 D.810

'죽음과 소녀'

드보르작/현악4중주 제 12번 바장조 작품

96 '어메리칸'

■ 27일 제 5회 박은숙 오카리나독주회

부산음악협회 오카리나분과 운영위원, 오카리나교육연구회 회장으로, 오카리나 대중화에 앞장서온 오카리나 연주자 박은숙이 들려주는 오카리나 음악의 세계.

- 클래식기타/고충진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김선구 조각초대전

2007.11.22(목)~12.16(일)

전시장소 : Honda cars D3부산광안점
(Tel:710-3000)



문의 : 624-0933

www.yehga.co.kr/한글도메인:갤러리에가



부산교사오케스트라 제 12회 정기연주회

7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부산교사오케스트라의 12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모차르트/교향곡 제 29번 가장조 K.201 하이든/교향곡 제 101번 '시계' 주페/시인과 농부 서곡 등
- 지휘/윤상운(동덕대학교 교수)
- 테너 솔로/우경준(장림여중 교사)

입장료 무료

문의 김용조(010-4568-3995)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7일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선율속으로...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지는 무대.

- 플룻/이상창, 이순희, 신수민, 백지원
- 클라리넷/강영훈, 강필주, 김경녀, 남현영, 강철주

■ 14일 바리톤 이창룡 독창회



진해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이자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창룡이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전곡을 들려준다.

■ 21일 유망 신예 연주자들의 밤

부산예중 · 고에 재학중인 차세대 유망주들이 펼치는 신예 연주자들의 밤.

■ 28일 사랑+행복 '오카리나와 노래 이야기'
박종근의 오카리나 연주와 노래로 꾸며지는 사랑과 행복이 있는 음악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아가폐합창단 제 30회 정기 연주회-바울의 회심

8일 목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인 시인 이상운이 작사하고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 회장 한근태가 작곡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바울의 회심' 등 두 편의 창작 칸타타를 들려준다.

- 지휘/김주태
- 출연/소프라노 최혜영, 테너 김정엽, 바리톤 최영수, 샬롬 어린이선교합창단

입장료 무료

문의 아가폐합창단(816-2807)

테너 강호진 독창회

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콘서바토리 음악원, 창원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진해시립합창단 단원, 글로리콰이어 단원으로 활동중인 테너 강호진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1부 클래식 곡에 이어 2부에서는 팝페라 형식의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사한다.

- 찬조출연/최영일(소프라노), 김현경(기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강호진(019-380-9991)

송언경 첼로 리사이틀

10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세계적인 거장 아노스 슈타커로부터 '뛰어난 첼리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송언경은 미국 인디애나음대에서 음악박사 과정을 수학과 다양한 무

대에 서오고 있다.

프로그램

- 보케리니/소나타 가장조
- 드뷔시/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 피아노/엘리제베타 로마눔스카야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 9회 정기연주회

10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1996년 초등학교와 중학생 70여명으로 결성된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9번째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부산리코더앙상블

입장료 무료

문의 김인옥(011-871-0412)

제 3회 김인호 플루트 독주회 '자유'

10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현재 유니세프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그레도 플루트트리오, 화이트 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김인호의 세 번째 독주회.

프로그램

- 마스네/타이스명상곡
- 바흐/G선상의 아리아
- 비제/아를르의 여인 등 수록
- 반주/고충진(클래식기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너뮤직(017-554-7777)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0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그동안 소년소녀 가장돕기, 교도소 순회공연 등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음악사랑을 펼쳐온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 지휘/이성훈 · 반주/전은경
- 특별출연/소프라노 노수진

입장료 무료

문의 단장 이재상(019-537-0337)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11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창단 이후 네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한·일 친선연주회, 2005 통영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파헬렐/캐논

소르/서주와 모차르트 테마에 의한 변주곡
메르츠/엘레지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011-9342-0524)

박은숙 제 4회 오카리나 독주회

1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카리나와 기타, 성악이 함께하는 오카리나 연주자 박은숙의 네 번째 독주회.

프로그램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명 등 수곡

· 특별출연/이은민(테너), 고종진(클래식기타), 드보라중창단

· 반주/이승윤

입장료 초대

문의 박은숙(011-9532-5759)

부산코러스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13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지난 1999년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코러스합창단의 7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구두회/사우월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중 '노예들의 합창'

베토벤/교향곡 제 9번 '합창' 등 수곡

· 지휘/박근기 · 반주/김지원

입장료 초대

문의 정현모(016-551-7542)

가난한 지구촌 돕기 2007 사랑의 자선음악회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4년 출범한 국제구호단체인 (사)한끼의 식사기금에서 매년 창립일을 기념해 마련하는 사랑의 자선음악회로, 음악회 수익금 전액은 아동구호사업에 쓰여진다.

· 출연/박현정(소프라노), 이윤정(소프라노), 강희영(메조소프라노), 이철성(테너), 조현수(바리톤), 박미은, 박재나(피아노), 박경희(바이올린), 전명희(첼로), 이상창(플루트), 광승용(기타)

· 해설/박진홍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사)한끼의 식사기금(731-7741~2)



GloVil Art Hall
Recording Studio

가수 '비'가 녹음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 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빌아트홀

글로빌아트홀 2007년 하반기 대관 신청 중
공연/녹음/음반제작/제자발표/마스터클래스/세미나



GloVil Art Hall

607-0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운현3동 1243-21 기획빌딩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제 18회 이진음악회 하모닉브라스 초청연주회

14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이 시대 최고의 금관악기 5중주단인 독일의 하모닉 브라스를 초청, 경쾌한 브라스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2007 이진음악회. 프로그램

로시니/세빌라의 이발사
칼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 중 '운명의 여신' 등 수록

입장료 초대
문의 이진산업(032-760-0383)

정인현, 정재은 색소폰 & 플루트 듀오 리사이틀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정인현 정재은

위티티 윈드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색소폰 주자 정인현과 플루티스트 정재은의 듀오 무대. 정인현은 대전대학교와 프랑스 에브리음악원, Aubervillier 시립음악원을, 정재은은 경희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 특별출연/플루티스트 박찬엽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작은 거인들의 멋진 음악회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전국 유명콩쿠르를 휩쓴 부산예술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차세대 유망주 7인이 펼치는 멋진 음악회.

· 출연/김태길, 박정연, 박하진(피아노), 황고은, 이호진(바이올린), 안정민(비올라), 이현수(오보에)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기업 플루트 독주회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 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음악원에서 음악공부를 한 플루티스트 성기업 독주회.

· 피아노/유영옥

· 나레이터/김유경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음악자료창고(582-9143)

이현옥 오보에 독주회

17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예고 1학년 수료 후 독일로 유학, 칼스루에 국립음대(학사),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석사),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중인 오보에리스트 이현옥 독주회.

· 피아노/한지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현옥(010-9949-0511)

서승완 기타 독주회

18일 일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기타협회 회원,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단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승완이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기타연주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승완(017-598-0074)

부산여교사합창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19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 경남지역 여교사 30여명으로 결성된 부산여교사합창단은 1995년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어린이날 기념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맞이 특별연주회, 부산합창제 등의 무대를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특별출연/이은민(테너), 조강현(첼로, 포천 초등 5년)

입장료 초대
문의 박화순(011-864-1471)

김두천 혼 독주회

1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의대학교와 독일 부퍼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는 호른리스트 김두천 독주회.

프로그램

글리에르/협주곡 작품 91
차이코프스키(편곡/임채석)/심포니 제 5번

베토벤/소나타 작품 17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두천(010-2559-7569)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19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동의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원, 이태리 피아첸차 국립 음악원을 졸업한 신정순은 그동안 두차례의 독창회를 비롯 이태리 초청 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과의 협연무대, UN 추모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백현주 · 특별출연/고충진(기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M&M(010-9608-8799)

양상블 클라시아와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20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양상블 클라시아의 연주와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가장조 '시타들라' 비제/아를르의 여인 중 '미뉴엣' 등 수곡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양상블 클라시아(506-6305)

한화와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의 오페라 여행

22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소프라노 서경숙과 테너 이현이 출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1막 하이라이트를 들려주는 한화와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대한생명 박광순(669-6747)

김덕수의 다이내믹 코리아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사물놀이 창시자로, 세계인을 감동시켰던 김덕수가 그의 50년 무대인생을 집약한 무대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는 우리 전통의 노래와 춤, 음악의 정수를 모아 상생과 조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총체연회극이다.

· 출연/한울림예술단, 소리꾼 박중호, 한누리무단

입장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24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국악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앙상블 무대. · 출연/장혜숙(가야금), 이정필(단소), 조익래(북)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영남필하모니(853-1357)

김경태 클래식기타 독주회

24일 토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현재 인제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며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을 단원으로 활동중인 기타리스트 김경태 독주회.

프로그램

빌라 로보스/에튀드 제 1번, 7번, 11번 푸쵸/슬픈 전주곡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장사익 소리판-사람이 그리워서

24일 일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051-740-1700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온몸으로 소리를 뿜어내는 듯한 특유의 창법으로 사랑받는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소리판. 이번 무대에서는 신작앨범 '사람이

그리워서' 수록곡과 허허바다, 여행, 민들레, 짙레꽃 등 그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B석 20,000원

문의 행복을 뿌리는 판(638-0514)

테너 김지호 초청 독창회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페라 가수로서 필요한 소리와 외모, 연기력을 갖춘 드라마틱 테너 김지호는 이번 무대에서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및 팝, 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입장료 R석 50,000원 · 일반 20,000원
학생 10,000원

문의 안상철(010-2400-5271)

우크라이나 글린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27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서심미

황지원

1957년 우크라이나 지포르지예시 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된 후 현재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잡은 글린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부산공연.

· 지휘/슬라바 레디아
· 협연/서심미(피아노), 황지원(바이올린)

입장료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
(622-3336, 010-9798-9434)

부산창작합창21 회원 작품 발표회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창작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부산창작합창21 회원들이 마련하는 창작발표회로, 올해는 창작 성가합창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최삼화/나를 인도하소서

김종욱/주님의 은총

황장수/갈보리 그 사랑

정승원/축복하소서 등 수곡

· 작곡/최삼화, 김종욱, 황장수, 이옥영, 진소영, 정혜란, 정승원, 조혜선, 하미영, 이민지

· 합창/코란데오 카펠라 합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최삼화(890-1318)

제 14회 영신음악회

27일 화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한남식

올해로 21년의 전통을 이어온 영남장로회신학교가 매년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영신음악회.

· 출연/한남식(테너), 정대자(소프라노), 배희영, 전미정(피아노), 정혜영(바이올린), 김정현(첼로), 손현줄(팬플룻), 장현정(오르간), 글로리아중창단, 동구여성합창단(지휘/이광산), 하늘소리합창단(지휘/전경일)

입장료 초대

문의 영남장로회신학교(557-6673)

우크라이나 글린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우크라이나 글린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무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
(622-3336)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창단공연

29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2006년 10월 아마추어 가야금 연주자 9명으로 결성된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의 창단공연.

프로그램

성금련/창작곡 '흥'

강봉천(편곡)/가야금3중주 '남도아리랑'

성금련류 가야금산조 등

· 특별출연/지순자(가야금), 김용우(소리꾼)

입장료 무료

문의 강봉천(011-355-4833)

제 14회 작악회 신작발표회 합창의 밤

29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작곡가 김국진의 제자들로 결성된 작악회의 2007년 신작발표회로 독창, 중창, 합창 등 합창의 밤으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김국진/성도들이 깨어 있으라

변태미/예수께서 가라사대

김성희/함께하는 사람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이주애(010-5632-2501)

밀레니엄 현악4중주단 제 5회 정기연주회

30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2000년 2월 창단 이후 그동안 4차례의 정기연주회와 실내악페스티벌, 경신문화홀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밀레니엄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스메타나/현악4중주
 보로딘/현악4중주
 피아졸라/현악4중주 등
 · 연주/정덕원, 이미하(바이올린), 구영숙(비올라), 김희은(첼로)

입장료 초대
문의 정덕원(017-554-7292)

적인 삶의 비극을 담은 창작춤 '그 일그러진 像'을 선보인다.

· 안무/박성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A석 20,000원
 박성호(621-1289)

최채연 정통 벨리댄스 제 9회 정기공연

18일 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소극장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생활체조연합회 벨리댄스 분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통 벨리댄스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최채연의 벨리댄스 정기공연.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최채연(011-880-0340)

춤배 배김새 정기공연 -푸른 눈물

29일 목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한국 전통춤을 토대로 관객과 함께 삶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춤배 배김새의 정기공연.

춤배 배김새 대표,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춤꾼 하연화의 창작무용 '푸른 눈물'을 선보인다.
 · 안무/하연화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하연화(017-547-4761)

디딤새 고운발 박정수의 춤

30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7회 전국 우리춤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춤꾼 박정수의 개인출판.

인간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춤꾼 정재만의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 특별출연/정재만, 정용진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박정수(011-9538-1069)

박은화 현대춤 공연 TuningⅨ(the earth)

3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박은화 교수가 선보이는 창작춤 시리즈 'Tuning' 9번째 무대.

무 용

박성호의 춤-그 일그러진 像

3일 토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대극장



전 새암춤 대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춤꾼 박성호는 현재 경성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박성호는 이번 무대에서 한 남자의 걱정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아시아아보병원 · 김선덕진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외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일남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6114
 전화예약 (051) 990-6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6-119
 항암방진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8155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8편의 작품을 선보인 Tuning 시리즈는 나를 버릴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Tuning'을 주제로 자아와 이 시대의 정체성을 응시해왔다.

- 안무/박은화
- 출연/박근태, 김현정, 정진우, 안선희, 박근영, 허종원
- 음악/신혜영(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부산대학교(510-1740)

연극

극단 아젠 로망스2

10월 10일(수)-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10/31일 공연없음)
소극장 미리내

홀로 사는 철부지 엄마와 서른이 다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딸이 펼치는 일상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작품.

- 연출/호민
- 출연/남현주, 김희지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소극장 미리내(504-2544)

코메디 클럽에서 올라

10월 13일(토)-11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인생의 아픔을 물어둔 채 웃겨야만 살 수 있는 삼류 코메디언 조덕배의 인생을 통해 눈물나는 감동의 코메디를 보여준다.

- 작/김태수 ·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어주선, 권철, 구민주 외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배.관.공 창작극 시리즈3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10월 25일(목)-11월 1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4:30 열린소극장

해방이 되고 귀향을 앞둔 세 명의 위안부 여인이 지난 시간의 상처 때문에 신음하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치밀한 심리묘사로 그려낸 작품.

- 원작/극단 한강 공동창작
- 연출/유재명
- 출연/진선미, 손남숙, 백선우, 배진만
-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입장료** (사랑티켓 참가작, 예매시 30% 할인)
-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극단 누리에 장군슈퍼

10월 26일(금)-11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장군슈퍼에 모여드는 각기 다른 인물들 통해 소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 작/김한길 · 연출/강성우
- 출연/김학준, 최현경, 황정미, 최성희, 권우람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박해미의 로맨틱 뮤지컬 I DO! I DO!

3일 토요일 오후 4:00, 7:30
4일 일요일 오후 3:00, 6: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결혼에서부터 노년기까지 한 부부의 인생이야기가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 로맨틱 뮤지컬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박해미와

- 이병준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학생 2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 문의** (주)AN시티(1644-4484)

베를린의 개동이

(원제 : 비보이의 꿈)
11월 13일(화)-12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극단 가마골의 고정레퍼토리인 '산너머



개동이'를 독일의 주목받는 젊은 작가 마르쿠스 브라운이 재구성하고 알렉시스 부크가 연출한 '베를린의 개동이'는 원작에서 제기하는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교체, 새 시대에서의 통합과 융합의 문제를 독일 동·서독통일의 문맥에서 재수용하여 진정한 통일이란 무엇인지를 묻는다.

- 작/김경화
- 재창작/마르쿠스 브라운
- 연출/알렉시스 부크
- 입장료** 균일 2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작공방(劇作工房) 방공 첫 번째 무대작업 아프리카를 꿈꾸는 두 편의 응모작

11월 23일(금)-12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신인작가상 소설부문 심사를 위해 모인 작가 세 명의 지루한 논쟁과 공방을 그린 창작극.

- 작, 연출/이길
- 출연/이정비, 유재명, 안성혜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전화예매시 30% 할인)
-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SBS 옷찾사 타이거마스크 미술사 토니의 매직쇼

24일-25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TV 옷찾사 미술코너를 담당했던 타이거마스크 미술사 토니가 선보이는 환상적인 미술쇼.

- 변경, 상자 속으로 사라지는 미녀, 일루션 미술, 물컵 공중부양 미술, 카드미술 등 다양한 미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 입장료** 균일 15,000원(예매 5,000원 할인)
- 문의** J엔터컴(1566-9868)

아 동 극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똥풀

9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단체관람), 10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23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단체관람), 24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주인공 하늘이가 한쪽 다리의 장애를 가진 엄마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어린이 성장극.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

17일-1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대극장

동화 속 요술램프의 등장으로 뽀로로와 친구들이 겪는 좌충우돌 신기한 모험의 세계.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0,000원

문의 부산문화방송(760-1166)

콘서트

207 결식아동돕기 7080 도시락 콘서트 전국 투어 in 부산

10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70,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문의 BOLL엔터테인먼트(1644-3544)

행사

제 66회 시울림 시낭송회

1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017-573-6080)

전시

백남준의 '로봇'

10월 4일(목)-11월 18일(일)

조현화랑

백남준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로봇 조각 10여점이 전시된다.

문의 조현화랑(747-8853)

고정원 개인전 舞-靜中動

10월 22일(월)-11월 9일(금)

비주갤러리

문의 비주갤러리(703-4045)

이태우 초대전 '영원의 노래'

10월 23일(화)-11월 11일(일)

갤러리 예가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경일대 순수사진전공 그룹전

10월 23일(화)-11월 11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김덕길展

11월 1일(목)-11월 15일(목)

김재선갤러리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박정희 사진전

11월 9일(금)-11월 30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중진작가 구운옥 초대기획전

11월 12일(월)-11월 16일(금)

부산진구청 백양홀

문의 부산진문화원(817-9648)

주선포 사진전 '용호농장'

11월 13일(화)-11월 18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김선구 조각 초대전

11월 22일(목)-12월 16일(일)

Honda Cars D3 부산광안점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정기회원소식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11/10(일) 17:00	피아니스트 임동민 리사이틀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10%	공연기획 예성 (582-2026)
	11/24(토) 17:00, 20:00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시리즈 II 라 트라비아타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그랜드 오페라단 (610-1004)
	12/6(목) 11:00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균일 15,000원	30% (1인 4매까지)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1/3(토) 16:00, 19:30 11/4(토) 15:00, 18:30	박해미의 로맨틱 뮤지컬 I DO! I DO!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10%	(주)AN시티 (1644-4484)
KBS부산홀	12/1(토) 19:30	안치환과 자유 콘서트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10%	SM기획 (442-6500)
	12/2(수) 15:00, 18:00	웃찾사 부산나들이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동아대학교 석당홀	11/3(토) 16:00, 20:00 11/4(토) 15:00, 19:00	주주총회 콘서트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10%	(주)AN시티 (1644-4484)
가마골소극장	11/13(화)~12/2(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베를린의 개풍이	균일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타리 332-7339)

자연과 사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늘채" 가 있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순수한 자연환경과 유엔명화공원이 내집 정원인 곳
멋진 광안대교 아래까지 당신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문의/ 051)703-1003

아늘채

코오롱건설(주)

Recommended Performances in November

The Ploiesti State Philharmonic Orchestra from Rumania!

4th(SUN) 6:00 p.m. Busan Citizens' Hall Main Hall

The Ploiesti State Philharmonic Orchestra has various repertoires from classic music to modern ones. The orchestra became well known by its tour concert first in Germany in 1971, then Luxembourg, USA, Italy, France, Czech and other countries.

Program

G. Rossini/'The Barber of Sevilla' Overture

F. Mendelssohn/Symphony No.4 in A Major Op.90 'The Italian'.

W. Mozart/Flute Concerto No.1 in G Major K.313 etc

• Conductor/Valentin Doni

Ticket: All seats for 10,000Won

For more information: 02-585-2934~6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57th Regular Performance 'A RING – Ring of Circulation, Body'

8th(THU)~9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n the 57th regular performance of th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troop will present the Korean people's vitality and power with moderate intensity movements and the powerful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instruments.

• Dance Director/Hong Gi-tea

Ticket: R-10,000Won, S-7,000Won, A-5,000Won

For more details: 607-6118

Lim Dong-Min Piano Recital

11th(SUN) 5: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icon of the world renown Korean Pianist Lim Dong-min is visiting Busan. Lim won the first prize at the 2nd International Young Chopin Concours in September 1996. Since then he proves his talents to the world.

Program

Beethoven/Sonata No.31

Beethoven/Sonata No.23 'Appassionata'

Liszt/Sonata h-mol

Ticket: R-50,000Won, S-30,000Won, A-20,000Won

For more details: 582-2026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35th Subscription Concerts

16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Principal Conductor, Alexander Anissimov conducting the 435th Subscription Concert of th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Esther Park, the Gina Bachauer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winner and Young-Lip Kim, Harp virtuoso of the Busan Philharmonic will join the concert.

Program

C. Debussy/Dances sacree et profane L.103

S. Prokofiev / Piano Concerto No.1 in Db Major op.10

D. Shostakovich / Ballet Suite No.1 etc.

• Conductor/Alexander Anissimov

Ticket: R-10,000Won, S-7,000Won, A-5,000Won

For more details: 607-6101~4

Kim Duk-Soo's 'Dynamic Korea'

23rd(FRI) 7:30 p.m.

Geumjeong Cultural Center Grand Hall



Kim Duk-soo, the founder of Samulnori, has won world people's heart by 'Dynamic Korea' for the last half century. The energetic performance is a newly defined concert drama or cross-over that shows the Korean traditional musics and dances.

Ticket: Adult-25,000Won, Teenagers or younger-15,000Won

For more details: 519-5651

The Opera 'La Traviata' – Opera Journey with Gum Nan-sea

24th(SAT) 5: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second opera journey with Gum Nan-sea, the Opera 'La Traviata' held in Busan. The opera marked full sold-out record at the Seoul Art Center. Now, the opera is going to take your breath away. With the famous conductor Mr. Gum, the New Prime Orchestra play beautiful melodies and world's renown vocalists including Seo Whalran, Sebastian Na, Kim Dong-won, Sung Jung-ah, Jeon Byuon-gu, Lee Chang-ryong will join the stage.

• Orchestra/Rumania National Orchestra

Ticket: VIP-100,000Won, R-70,000Won, S-50,000Won,

A-30,000Won, B-20,000Won

For more details: 610-1004

Jang, Sa-ik Concert 'Longing...'

24th(SUN) 7:00 p.m.

Busan Citizens' Hall Main Hall

Jang sa-ik plans to show how he has combined his traditional Korean folk roots with a wide variety of modern influences to create a new, unique genre of pansori.

Ticket: R-80,000Won, S-60,000Won, A-40,000Won, B-20,000Won

For more details: 638-0514

사악한 마녀 엘파파에 관한 숨은 이야기

뮤지컬 위키드

이상훈 · 뮤클(뮤지컬&클래식) 운영자



대다수 유명 뮤지컬의 원 이야기는 유명한 소설, 성공한 오페라 등에서 차용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두 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캐릭터를 소개하고 스토리를 전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음악으로... 이미 관객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함축과 비약적인 전개에 그 흐름을 끊지 않을 수 있다면 한층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의 경우 19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신부를 만나 회개하기 까지를 도입부 프롤로그 한곡으로 끝을 낸다. 표현의 기술적인 부분도 기인하겠지만, 역시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기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잘 아는 내용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오즈의 마법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동화이다. 주디 깬트 주연의 영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Over the Rainbow라는 뮤지컬 넘버는 한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내용이다. 그런데 이 작품 중 도로시의 시선이 아닌 마법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 기발한 상상이 나온 뮤지컬이 바로 위키드(Wicked)이다.

'위키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악한 마녀 엘파파에 관한 숨은 이야기이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다른 녹색피부를 지녔으며, 그로 인해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가 된다. 그리고 도로시를 도와주는 착한마녀 글린다는 어떠한가? 최신유행을 좇는 마치 할리우드의 상속녀 같은 철부지 소녀의 캐릭터이다. 이 두 사람을 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등장한다. 하지만 익히 알고 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어차피 뒤집어서 시작한 작품이니깐, 심장이 없는 허수아비는 실제 엘파파와의 연정에 빠져서 죽음에 처해진 피에로이고 전지능한 오즈의 마법사는 원작에서도 그렇듯이 무능력한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위키드의 줄거리를 소개하기가 조심스럽다. 반전에 반전이 있는 작품이라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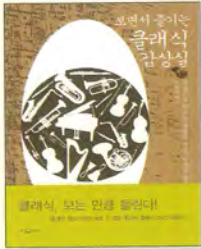
2003년 뉴욕의 거원극장에서 초연을 한 이 작품은 뮤지컬 가스펠, 피핀의 제작자 중 한사람인 스티븐 슈워츠에 의해 재탄생했으며 이듬해 토니상에서 10개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그해 여우주연과 의상, 무대상을 받았다. 특수효과부분의 엘파파의 공중부양부분은 마치 라스베이거스의 쇼를 보는 것 마냥 화려하다. 이때 나오는 '중력의 한계를 넘어'는 이 뮤지컬의 대표곡이기도 하다.

현재 이 작품은 미국 뉴욕과 시카고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얼마전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동경에서 무대에 올려졌다. 매표가 되자마자 거의 일년분의 티켓 약 20만장이 사전예매가 되어 관계자들을 놀래킨 작품이다. 우리나라에도 내년쯤 소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대가 된다. 높은 가창력을 요구하는 여배우 두 명이 필요한데, 어느 배우가 엘파파와 글린다에 캐스팅 될지를 미리 점찍어 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 같다.

지난달에 250억이 투자된 뮤지컬 라이온킹이 짧은 막을 내렸다. 또 한편의 블록버스터 뮤지컬, 약 170억에 달하는 위키드의 라이선스 한국공연은 어떤 발자취를 남길까?

보면서 즐기는 클래식 감상실

진희숙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303p / 13,800원



음악 연주회에 직접 가 본 사람은 공연장에서의 감동이 얼마나 생생한지 느껴보았을 것이다. 현장에 갈 수 없다면 그 장면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이 책은 세기의 거장들이 펼치는 화려한 클래식 연주장면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클래식 감상서이다. 음악 칼럼니스트이자 <클래식 오딧세이> 등 여러 권의 클래식 교양서를 집필한 저자는 이 책에서, 클래식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최고의 클래식 DVD를 골라 맞춤형의 하듯 친절하게 소개한다. 클래식 거장들의 명연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영상물의 장점을 살리고자 DVD에 실린 연주 장면과 관련 도판까지 담아 DVD의 생생함을 책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세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와 함께 유럽의 유명한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유러피안 콘서트, 지휘계의 제왕 카라얀의 카리스마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베토벤 교향곡 <영웅> 연주실황 등 음악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명연에서부터, 현실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불멸의 거장들의 모습까지 클래식 애호가라면 놓쳐서는 안 될 클래식 명 DVD 60여 편을 15개 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평론가 매혈기

김영진 지음 / 마음산책 / 307p / 11,000원



영화잡지 <씨네21> 창간 기자를 거쳐 <필름 2.0>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진 씨의 영화산문집. 영화를 그저 '보는' 대상에서 '읽어내는' 주제로 끌어올린 영화평론가 김영진씨의 개성 넘치는 사유와 영화평론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책이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쓴 글의 정수만을 뽑아 새롭게 구성한 28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탐닉하고, 글쓰기를 통해 부단히 자신을 단련시켜나간 한 시네필의 내면과 조우하게 된다. 책 제목은 중국 작가 위화의 작품 <허삼관 매혈기>에서 따왔다. 이 소설에서 허삼관은 인생의 고비마다 피를 팔아 연명한다. 영화 평론가 김영진은 <평론가 매혈기>에서 자신의 평론 활동을 '매혈'에 빗댄다. 영화에 대한 느낌과 감동을 글로 팔아 먹고 산다는 말이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더 다가서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듯이 좋은 영화를 대할 때도 누구보다 먼저 글을 써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김영진 씨 인생의 중심은 영화인 것이다. 현장에서 영화와 함께 호흡하며 부지런히 쓴 한편 한편의 글들은 연애감정의 농밀한 결과물인 동시에 자신의 피와 바꾼 등가물이기도 하다.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

윤용이 지음 / 돌베개 / 367p / 18,000원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도자기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도자기에 대한 책이 드물다. 이 책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연구반에서 진행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도자기' 강의를 엮은 것이다. 한국 도자기 연구의 권위자인 윤용이 교수가 강의내용과 도자기에 관한 학술적인 정보와 흥미로운 생활사적인 이야기를 첨가, 보완하여 출간했다. 선사시대의 질그릇부터 조선시대의 백자까지, 각 시대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도자기의 발달사를 구어체로 흥미진진하게 서술했다. 그릇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 가마터와 유물을 통해 청자의 탄생 시기를 어떻게 추적해나갔는지, 분청자가 왜 일본인에게 그토록 사랑받고 있는지, 상류층에서 청자와 백자를 향유하는 동안 백성들은 어떤 그릇을 사용했는지, 중국과 일본에서 채색자기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선 왜 순백의 백자만 주로 만들어졌는지 등 약 1만여 년의 도자기 역사를 짚어주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 안에서, 또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우리 도자기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 쇠퇴하였는지 소중한 역사의 한 부분을 알아보자.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의 문화사절단

부산시립무용단 해외공연 활발



백두대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부산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을 통해 부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 부산시립무용단이 11월 중국 대련시에서 열리는 부산-후쿠오카 공동관광설명회 축하공연과 중국 강소성 남경, 복건성 복주에서 열리는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무대 공연단으로 초청받았다.

11월 7일 열리는 부산-후쿠오카 공동관광설명회는 매년 부산광역시와 일본 후쿠오카시가 해외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중국에 부산을 알릴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태극선을 이용하여 나라의 태평성대를 표현한 창작무용 '태평성대'를 선보인다.

대련공연에 이어 11월 19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주중대사관 및 중국 지방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Team Korea Project'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중국 공연 길에 오른다. 부산시립무용단은 무역·투자 상담회 외 문화·예술 행사, 홍보 행사 등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 대표 레퍼토리인 '천하태평지무'와 '백두대간'으로 우리 민족의 기백과 수준 높은 문화 예술적 기량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하는

부산문화대학 제 1기 개강

-10월 4일 개강, 100명 참가-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들과 함께 하는 부산문화대학이 10월 4일 개강되어 100명의 수강생들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부산문화대학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문화적인 감성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시도된 부산문화회관 교육프로그램으로 8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부산문화대학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참신한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수강생들의 인기가 높다. 10월 4일 개강 첫 강의로 수강생들의 사랑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 지휘자

(10/4)를 비롯하여 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 지휘자(10/10), 시립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10/17, 11/2), 시립무용단 흥기태 안무자(10/24), 시립극단의 손기룡 연출가(10/31)가 강사진으로 참가하여 문화 예술 장르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수강생들은 문화대학 카페 개설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 등 예술단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1				2			3		4
									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기로운제

1.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제를 위한 테마여행 11월 여행지로, 김해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건축 도자 전문미술관.
5. 두 개의 'ㅈ' 모양 관을 맞추어 만든 금관 악기. 관을 뽐거나 당기는 슬라이드 장치로 음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7. 북한 탈주인을 새롭게 이르는 말.
9. 2007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월드프리미어로 첫 선을 보인 이명세 감독, 강동원 주연의 영화.
10.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15. 놀부 동생.
16. 19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국출신의 두 육상선수 에릭과 해럴드의 집념을 다룬 스포츠 영화. 반젤리스의 영화음악으로도 더욱 유명하다.
17. 과대망상에 빠진 주인공이 기사 수업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린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18. 성 본능에 대하여 날카롭게 관찰하여 인간의 자유와 악의 문제를 추구한 프랑스 소설가. 성적 대상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異常) 성욕을 일컫는 사디즘은 이 작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20. 강원도 양양군과 인제군 사이에 있는 산.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금강굴, 비룡폭포, 비신대, 신흥사, 울산바위, 오색약수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22.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휴연, 음주, 성 행위 따위를 금한다.
24.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에 있는 도시. 갈릴레이의 낙하실험으로 유명한 기울어진 탑이 있다.
25. 우리나라의 국화(國花).
26. 20세기 초 가장 탁월한 피아니스트이자 낭만파의 마지막 작곡가이기도 했던 러시아의 작곡가. 피아노곡을 비롯하여 관현악곡, 가곡, 합창곡, 오페라 등 많은 곡들을 남겼다.

새로운제

1. 오스트리아의 화가. 동양적인 장식양식에 착안해 템페라, 금박, 은박, 수채를 함께 사용한 다채로운 기법은 그의 독창적인 기법이다. 주요 작품으로 입맞춤, 아델레 블로르 바우어 부인, 다나에 등이 있다.
2. 천연기념물 제 197호, 딱따구릿과의 새로 부리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아주 요란한 것이 특징이다.
3. 여든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일본식 조어.
4. 연극의 3대 요소는 무대, 배우, OO.
6. 으뜸가는 부처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불'을 이르는 말.
8.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온 국가. 수도는 이스탄불.
11.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르는 말.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에 있을 때에, 태종이 보낸 차사를 혹은 죽이고 혹은 잡아 가두어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던 데서 유래.
12.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
13. 인도 콜카타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봉사해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은 수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4.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19. 영국의 괴기소설가 B.스토커의 소설 주인공 이름. 스토커의 소설은 흡혈귀 소설의 원조가 되었고, 이후 영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각색되어 공연되기도 했다.
21. 1925년에 간행된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된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고독하고도 순수한 삶의 모습을 꽃에 비유한 시이다.
23. 불교용어 범어 마르만(marman)에서 나온 말이다. 옛 인도의학에서는 사람의 전신에는 마르만이 10곳 있다고 하며, 이 곳을 자르면 격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죽사한다고 했다. 그래서 마르만을 끊는 고통을 OO라고 하며 격심한 신체적 고통, 임종 등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24. 대표적인 건반악기. 음역이 넓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지난호 정답

집	결	호	서	른	즈	음	애
	스		곡	문		일	레
그	린	피	스		둥	굴	레
랜		스	두	딱	이	종	묘
드	림		보	름		브	수
술	미		파	바	로	티	
림	브	란	트		오	드	가
		다	고			웨	일
미	안		검	은	고	양	이
니							니
거	제	도		래			곳

- **큰집 식사권**
박정희(사하구 괴정동)
박연숙(연제구 연산5동)
심숙성(연제구 거제3동)
김성희(북구 화명동)
김미진(남구 문현동)
- **돈방**
이재희(남구 감만1동)
황선영(해운대구 좌동)
이주은(연제구 거제1동)
유인숙(기장군 기장읍)
홍정숙(남구 대연3동)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김희선(동구 범일동)
이신주(해운대구 송정동)
정기모(기장군 기장읍)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박병기(금정구 부곡3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이관우(동구 범일6동)
강주찬(해운대구 반송3동)
김은희(남구 대연1동)
박주영(부산진구 전포1동)
박정도(사하구 다대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셀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산신마루 고풍터

· **찜갈비**

· **삼계탕, 들술비빔밥**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가을 속으로 떠난 마산 나들이 -마산시립문신미술관, 팜스테이 부재산방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의 일탈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활의 활력소이다.

10월 9일 부산시립무용단 단원과 함께 떠난 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목적지는 마산시립문신미술관과 팜스테이 부재산방.

“문신미술관이라고요, 무슨 미술관이예요, 이름이 이상해요.”

부산이 아닌 마산의 미술관이라 다소 생소했던지 출발에 앞서 미술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오전 9시 10월 테마여행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40명이 부산문화회관을 출발, 10시경 마산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마산 문신미술관에 도착했다.

문신미술관(www.masan.go.kr)은 피리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선생이 1980년 귀국하여 14년 세월을 걸쳐 직접 건립한 미술관이다. 선생의 유언에 따라 2003년 유족들이 문신미술관을 마산시에 기증해 현재는 마산시립문신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생의 창작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은 어느새 마산의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7월부터 전시중인 ‘문신미술관 토탈 아트페스티벌 인 마산’ 전시를 큐레이터와 함께 둘러보며 문신선생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문신선생의 작품을 보석, 섬유, 토탈 패션 등에 응용하여 만든 토탈 아트페스티벌인 만큼 회원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문신미술관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가을이 무르



익은 마산시 진전면에 위치한 부재산방(www.bujae.com)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여항산, 적성산, 서북산을 끼고 있는 부재산방은 산중이라 가을 색이 더 곱다. 자연과 벗하며 좋은 만남을 꾸려온 부재산방지기 반병숙 씨가 준비한 맛깔스런 시골밥상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10월 테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동래야류 중 '할미 영감과장' 공연이 펼쳐졌다.

부산에서 연회되는 중요무형문화재이지만 동래야류를 감상할 기회가 없었던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장래훈 씨의 걸죽한 입담과 춤사위에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내친 김에 할미 영감과장을 함께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 후 가을에 피는 예쁜 꽃들을 광목천에 올리고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자연물염색체함과 부침개 부치기, 인절미 만들기, 고구마 캐기 등 체험을 하는 동안 하루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렸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예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10명을 추첨, 1인 2명에게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발 표 : 11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예의 초대>지면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12월 14일(금) 경주 다시보기!

신라 유적의 보고 경주박물관에서 옛 선조들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해누리 역사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본다.

- ▷ 09:00 부산 문화회관 출발
- ▷ 10:20 경주박물관 도착
- ▷ 12:10 점심식사
- ▷ 13:20 해누리 역사체험관 (탁본뜨기, 은귀고리 만들기 등)
- ▷ 15:00 첨성대, 안압지 등 경주시내유적탐방
- ▷ 16:10 경주출발 ▷ 17:30 부산 문화회관 도착



▶ 2008년 1월 11일(금) 밀양 미리벌 민속박물관

깊어가는 겨울 밀양으로 우리 것을 찾아 떠나는 체험여행. 미리벌 민속박물관과 방동 꽃새미 전통 테마마을에서 훈훈한 인정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본다.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10 미리벌 민속박물관 도착
- ▷ 12:00 중식
- ▷ 13:00 꽃새미 전통 테마마을 체험(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중 당일 가능한 체험진행)
- ▷ 16:00 꽃새미 전통 테마마을 출발
- ▷ 17:30 부산문화회관 도착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1월 당첨자

▶ 11월 9일(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및 단감따기 체험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강석환(중구 중앙동 4가)
김양시(서구 서대신동 3가)
나순자(사상구 학장동)
염주희(서구 서대신동)
송윤경(사하구 당리동)
이봉주(양산시 남부동)
이수정(부산진구 전포2동)
정기환(사하구 장림2동)
정우민(북구 만덕2동)
최미영(서구 남부민 3동)

■ 기존가입 당첨자(업서) 명단(10명)

김국자(해운대구 우1동)
문숙자(금정구 구서2동)
손주목(남구 용당동)
염영자(수영구 광안1동)
엄이숙(남구 용호1동)
여선희(남구 용당동)
윤금희(수영구 남천1동)
이신주(해운대구 송정동)
이점도(연제구 연산5동)
홍정남(연제구 연산5동)

부산시립합창단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가을의 한가운데서 맛깔스런 가을 노래들과
함께 만난 베이스 오현명의 '명태'는
지나간 시간을 따라 동해바다빛 기립박수를 끝없이 쏟아놓게 했다.
아름다운 노장!!

-박정희(사하구 괴정동)

부산시립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바이올린의 선율(旋律)이 심율(心律)로 다가오는 공연이었다.
데이비드 김의 명성만큼이나 뜨거운 무대였고 환상적인 감동을 안겨주었다.
지휘자와 협연자의 호흡도 좋았고 관객까지 모두가 어린아이 숨소리를 느끼는듯한 공연이었다.

-박관우(동구 범일동)

첫 키스의 짜릿함이랄까?
속이 후련할 정도의 감동과 특히 데이비드 김의 바이올린 연주는
마법의 피리처럼 청중을 무아의 늪에 빠져들게 했다.
역시 좋은 음악에 대한 감동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고,
음악에 대한 평소 나의 생각이 단지 오만한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공연이었다.

-김상현(동구 수정동)

영화 '원스(once)'

음악으로 기억될 사랑의 순간!!
최고의 음악영화라는 호평이 아깝지 않은 영화와 음악의 행복한 만남.
서로를 위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상 외의 결말이 더욱 매력을 발하는 영화.

-김민선(사하구 하단동)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예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문화회관

11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응고집



■작품설명

2006년 한국 희곡대상을 수상한 김태수 작가가 우리의 고전 응고집에 현대적인 옷을 입힌 퓨전창작뮤지컬.

※연출/손기룡

※출연/이혁우, 이돈희, 이현주, 황창기, 정행심, 유성주, 엄지선, 박찬영, 김은희, 임혜련, 엄준필(객원배우)

●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공연

■프로그램 및 출연진

○무용 '부채춤' (출연/이혜영, 이현경, 박삿별, 박한영, 김지은)

부채춤은 부채를 펴고 접고 돌리고 뿌리는 기교 자체가 춤사위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정동(靜動)의 짜임새가 고도의 조화미를 이루는 것이 특색이다.

○가야금 병창/흥부가 중 '제비노정기' (출연/김현주, 신아름, 배유경)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을 타면서 창을 함께 병행하는 양식의 연주형태로서 이는 연주자의 가야금 연주능력과 함께 창을 부르기 위해 탁월한 기예를 두루 섭렵하여야 하는 고난도의 분야이다.

○민요 '메아리' (출연/한봉혜, 전순옥)

메아리는 창작민요곡으로서 온 나라의 번영과 재건의 기상을 염원하는 흥겨운 가락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대목' (창/김정애, 고수/김영애)

춘향가 중 눈 대목으로 잘 알려진 대목으로서 이 도령이 내직으로 승차한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되자 차후 이 도령과의 상봉을 기약하는 이별대목이다.

○무용 '진도복춤' (출연/이혜영, 이현경, 박삿별, 박한영, 김지은)

진도지역만의 독특한 향토성과 신명이 묻어나는 북가락으로 진도지역을 대표하는 무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주/송재윤(대금), 김영애(장구) ※해설/장준영

●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공연

■프로그램 및 출연진

○부채춤(춤/구영희, 이정희, 노주연, 전성희, 이수영, 김근영)

○동래학춤(춤/이상훈)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은 동래 특유의 덧배기춤과 학의 우아함이 예술적으로 발전된 춤이다. 자연미와 예술미의 조화로움이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진주교방 굿거리(춤/박순희, 강미선, 민성희, 김정원, 김민경)

궁중교방 계열의 춤으로 고종조에 궁중무희였던 최완자가 낙향하여 교방청에서 전수하였고, 여기에 김복주의 소고춤이 더해져 이것이 현 보유자인 김수악 선생에게 전수되었다.

○산조춤(춤/신치련)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에 맞춘 춤으로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특징이며 화사한 춤사위를 풀어나가는 묘미가 있다.

○발레 -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출연/문혜경)

○현대무용 - 트라이앵글(출연/임혜주, 이은주, 김미라)

○소고춤(출연/윤정미, 서시영, 정은주, 조현영, 노명덕, 김민경, 전소영)

풍물에서 벽구놀이의 민속춤으로 오랜 역사 속에 전해내려 왔으며 마당에서 노는 축제적 성격이 강한 춤이다.

※해설/임옥자(부산대학교 체육과 교수)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 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별난물건박물관, 필하모니, 가마골 소극장, 아쿠아리움 등)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i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19, 51-1, 68,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7번가 피자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베를린의 개동이

10% 할인



- ▶ 날짜 : 2007. 11. 9(금)~12. 2(일)
- ▶ 시간 : 평일 오후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균일 20,000원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압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 ·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글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세계의 축제와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 연말 여행 마감임박!!

12/31

X-MAS



조기예약할인, 따뜻한 남국으로의 여행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파리식한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타이거쥬 3박5일

포함내용

449,000원~

왕복항공, 특급호텔3박, 전일정 식사, 산호섬일주, 민속쇼, 코끼리쇼, 호랑이공원, 앙공투어, 여행자보험

사이판 직항 2명이상 출발 하파데이 리조트 4박5일

포함내용

829,000원~

사이판 직항 왕복 항공, 리조트4박, 부대시설이용, 특식 (참치회, 스파게티), 시내관광, 마나가하섬 관광, 여행자보험

세부 직항 2명이상 출발 고품격 휴양형 자유여행 3박4일

포함내용

499,000원~

왕복항공, 리조트3박3조식, 현지 핸드폰, 현지공항픽업, 가이드북, 선택관광할인, 여행자보험

겨울이전 일본여행

오사카/나라/교토 아리마 온천 4박5일

포함내용

399,000원

팬스타워리 왕복, 아리마 온천욕, 교토관광, 나라국립공원, 오사카성, 오사카번화가, 동본원사, 여행자보험

하우스텐보스 12/22, 24, 29 북큐슈 온천 2박3일 (코비)

포함내용

529,000원~

패속선왕복, 하우스텐보스 1일 패스, 텐진시내관광, 호텔 2박(온천욕), 구마모토성, 전일정 식사, 여행자보험

유후인 온천료칸1박 + 후쿠오카 1박 자유여행 2박3일

포함내용

330,000원~

패속선 왕복, 유후인 온천 료칸 1박 (조, 석식 포함), 비즈니스호텔1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크리스마스 & 연말여행

정동진 일출/양떼목장/봉평 허브나라 무박2일

포함내용

55,000원~

왕복교통(전용버스), 정동진 일출, 조각공원, 목장체험, 메밀꽃랜드, 허브나라, 여행자보험

크리스마스 제주 실속해피투어 2박3일

포함내용

199,000원~

왕복항공, 관광1급2박, 조, 중식 제공, 소인국, 해피타운, 산방산, 용머리해안, 여미지 식물원, 천지연폭포, 일출랜드 등

12/23, 24 제주도 롯데호텔 2박3일

포함내용

439,000원~

왕복항공, 롯데호텔2박 (조, 중식 제공 / 아이스링크 이용), 소인국, 해피타운, 여미지 식물원, 일출랜드 관광 등

프리스타일

홍콩 자유여행 2박3일

추천일정

(4명출발시) 339,000원~

침사추이-레이저쇼-몽콕 야시장-센트럴, 피크-성왕, 할리우드-리펠스베이-오션파크

포함사항: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동경 자유여행 3일 385,000원~ 오사카 자유여행 3일 280,000원~

동경: 하라주쿠/시부야/신주쿠- 디즈니랜드-오다이바-하코네-닛코

오사카: 오사카성-신사이바시-유니버설

스튜디오-청수사-사슴공원

포함사항: 왕복항공, 비즈니스급호텔 2박, 샌딩

홍콩/마카오 베네치안 리조트 3일

추천일정

566,000원~

홍콩야경관광-마카오 베네치안 리조트 자유 시간-세나도광장, 성바울 성당

포함사항: 왕복항공, 홍콩1박, 마카오 베네치안 1박, 가이드북, 공항샌딩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mespris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월빙 콘서트”













금난새와

77세에 만나요!

바이올린 · 백재진

2007. 12. 6(목)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비발디 「사계 中 겨울」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후원  문화마을 이틀제 문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_ 균일 15,000원 *청기회원 1인 4매까지 3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 _  부산은행  부산지점  TICKET365  영광도서  동보서적  면학도서  남포문고  대한도서  향학서점

러시아 3大 발레단
“키에프 셰브첸코-Kiev Shevchenko”

주역들과 함께하는

호두까기 인형

연말연시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와 함께
클래식 발레의 3大 걸작으로 꼽히는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 왕자님과 함께 세계로 떠나는 환상체험!
2006 백조의 호수 주역 나탈리 마작 등 솔리스트 총 출연

2007. 12. 25(화) 오후 5:00, 26(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 키에프 셰브첸코발레단 솔리스트(5명)
키에프 소년소녀발레단

Natalya Matsak / Artem Datzishin / Shervakov Mikhail / Volodina Lina / Tzygankova Tatyana

- 티켓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B석 제외)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문화회관, (주)PMG Korea